

#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김항원 · 김진영 · 강근형 ·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 目次

제1장 서론	제4절 문화 및 생활의식 : 문화·생활영역에 관련된 의식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기존 연구의 검토	제4장 제주사회와 바람직한 제주정신
제2장 제주인의 의식형성과 관련된 제환경의 검토	제1절 제주사회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평가
제1절 역사적 환경	제2절 21세기 세계, 제주도 및 제주인
제2절 자연환경	제3절 바람직한 제주인의 의식 또는 정신
제3절 인문사회환경	제4절 제주정신 함양을 위한 몇 가지 과제
제3장 영역별 제주인의 의식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정치의식 : 정치영역과 관련된 의식	제1절 요약
제2절 관광 및 개발의식 : 관광·지역개발 영역에 관련된 의식	제2절 결론 : 제주정신의 확립을 위하여
제3절 사회의식 : 사회영역과 관련된 의식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21세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은 미래학자 나이스비트(John Naisbitt)가 지적했듯이 대격변(megatrends)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격변상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 어떤 모습을 할지는 예측하기 대단히 힘들지만, 그것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핵심적인 화두(話頭)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는 비단 국내적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이다. 그런 만큼 제주사회도 이러한 현상에서 빚겨갈 수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현재 제주사회가 안고 있는 객관적 조건이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기가 훨씬 힘들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매우 빠른 압축적인 사회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여 왔다. 이같은 사회구조적 변동의 과정에서 사회성원들의 의식 또한 급속한 속도로 변화해왔으며 그 실체적 내용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적응적인 것과 부적응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로 혼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혼재된 의식과 의식구조는 규범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성을 저해하였으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한국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제주사회는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70년대이래 급속하게 진행된 관광개발, 지역개발은 전통적 의식을 상당 부분 침해하였으며, 그 자리에 외래의 문화와 의식이 함께 공존하였다. 따라서 혼재된 의식의 이중구조가 사회전반에 구조화되었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사회구조적 변동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세계화와 개방화는 종전에 느슨하게나마 남겨두었던 지리적, 심리적 구획을 허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사회도 제주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계체제의 규범과 강제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체제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변동 속에서 지방화는 국가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화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가져야 할 책임이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제주인에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전래되어 온 부적합한 의식을 현 시점, 더 나아가 21세기에 조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제주정신을 재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속에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식과 자질은 과거의 그것들과 기본적으로 달라질 것을 요구한다. 그런 만큼 현단계 제주인의 의식을 분석하고 제주정신 함양을 위한 계기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마련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은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의식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명하고 미래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예견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식은 자각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지

니고 있는 생활상의 모든 감정,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의식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사물현상에 대해 갖는 인간의 사고 흐름체계 일반(의식 일반)을 망라하는 것이라면, 무의식은 자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의 사고의 흐름체계를 가리킨다. 정신은 이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행동의 실질적 추진체가 된다. 의식과 정신의 문제를 형이상학적, 철학적 인식론, 존재론의 범주에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과학적 인식으로 연장시켜보면, 의식 또는 정신은 사회관계 속에서의 자기 위치에 의해 규정받고 또 규정한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식 또는 정신은 사회의 객관적 구조와 사회변동 과정에서 마련되는 조건들에 의해 영향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식 또는 정신이 사회의 객관적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 또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그 자신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인지,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식 또는 정신은 실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식 또는 정신은 행동과 통합적 관련성을 지니면서 응집과 분해, 고정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의식 또는 정신은 사회현상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인의 의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제주인의 바람직한 정신세계의 확립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제주인의 의식형성과 관련된 제환경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역사적 환경,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을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현단계 제주인의 의식을 영역별로 분석한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인에게 요청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단계 제주인의 의식구조 또는 의식상태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버려야 할 의식과 함양시켜야 할 의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의식 또는 정신의 유형들을 설정한다. 제주인의 정서를 잘 반영하면서도 제주사회와 제주인들의 집단적 상징성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제주정신을 형상화함으로써 제주인의 의식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제주인의 의식내용을 객관적, 총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정신의 내용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질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위에서 정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루어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인의 의식형성을 둘러싼 제환경의 검토

## 2) 제주인의 의식

- (1) 정치영역과 관련된 의식: 정치의식
- (2) 경제영역과 관련된 의식: 경제의식
- (3) 사회영역과 관련된 의식: 사회의식
- (4) 문화·생활영역과 관련된 의식: 문화 및 생활의식
- (5) 정체감: 정체의식

## 3)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정립

- (1) 제주사회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평가
- (2) 21세기 세계, 제주도 및 제주인
- (3) 바람직한 제주인의 의식 또는 정신의 정립
- (4) 제주정신 함양을 위한 과제

##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졌다. 본 절에서는 표본추출 방법, 질문지의 구성, 자료의 분석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서술한다.

### 1) 표본추출 및 조사

본 연구는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① 제주도내 거주 일반(성인)집단 ② 제주도내 거주 전문직업집단(가령, 대학교수, 언론인, 행정기관 관리, 법조인, 의사 등), ③ 제주도내 대학생집단 ④ 제주도의 거주 전문직업집단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모집단을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주인의 의식 또는 정신을 비전으로 제시하려면 조사대상으로 단순히 일반인에 대한 조사로 한정시키지 않고,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적 비전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모집단별 표본추출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지역내 일반집단의 경우는 '95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표(1995. 12. 31일 현재 기준)에 근거해 세대비례로 2개 시(市)와 2개 군(郡)의 표본 수를 할당한 후, 시지역에서는 동(洞)을, 군지역에서는 리(里)를 추출하는 식으로 조사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표본 수를 구체화시켰다. 즉, 제주도 전역(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대상으로 하여(부속 도서 제외) 제주도 전체 세대에 대한 해당 시와 군의 세대비례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역별(시와 읍·면) 총 세대 수를 동(洞) 수 혹은 리 수로 나누어 지역별(시와 읍·면) 평균 세대 수를 구

한 후, 이를 지역내의 모든 동·리의 세대 수 및 지역적 특성(해안과 산간)과 대조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동과 리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추출된 동과 리에 대해서는 세대비례로 배정된 표본 수를 확정하기 위해 동에서는 통(統)을 무작위로 표집하고, 표집된 각 통별로 반(班)을 선택하였다. 리에서는 전체 반수를 확인하고 무작위로 반들을 표집하였다. 선택된 반들에 대해서는 반명부(班名簿)를 작성한 후 세대주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제주지역내 일반모집단에서 확정된 표본 수는 505명이었다.<sup>1)</sup>

전문직업집단에 대해서는 직업, 직급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서 대표적 유의표집법(代表的 有意標集法, presentative purposive sampling)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 표집방법은 본 연구가 단순히 의식 실태만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제주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의식 또는 정신의 내용을 구성해내고자 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표본선택의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데는 취약하지만 연구의 내용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내 전문직업집단 교수 50명, 행정기관공무원 30명(주로 제주도청), 언론인 35명, 변호사 및 의사 10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제주도외에 거주하는 전문직업집단에 대해서는 「제주인명사전」(제민일보사, 1994)을 참조하여(모집단 수 329명) 70명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집단(제주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대학교에 개설되고 있는 교양교과목 중에서 학년과 전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3개 과목을 선택하여 표본 70명을 추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응답들을 갖는 응답자들의 질문서들은 제외되었는데, 제주도내 일반집단 505명, 대학생집단 65명, 제주지역내 전문직업집단 74명(대학교수 32명, 행정기관 공무원 19명, 방송 및 신문사 언론인 17명, 변호사 및 의사 6명), 그리고 제주도의 거주 전문직업집단 43명 등 최종 687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는 조사대상자 집단에 따라 면접조사, 집단조사 그리고 우편질문서 방법을 병행하였다. 제주지역내 일반집단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면접원들은

1) 제주지역내 일반집단에 대한 표본 지역은 23개 동과 24개 리로 최종 선정되었다. 제주시 19개 동중 17개 동(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연동, 용담1동, 용담2동, 노형동, 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아라동, 화북동, 삼양동, 외도동, 오라동, 이호동), 서귀포시 12개 동중 6개 동(동홍동, 대륜동, 중문동, 송산동, 중앙동, 효돈동), 북제주군 85개 리중 12개 리(한림리, 금악리, 한수리, 애월리, 남읍리, 금성리, 새화리, 송당리, 조천리, 선흘리, 고산리, 용당리), 남제주군 74개 리중 12개 리(하모3리, 무릉1리, 일과1리, 남원1리, 신례1리, 수망리, 고성리, 수산2리, 화순리, 창천리, 표선리, 가시리)가 그것이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와 국민윤리교육과 3학년에 재학중인 15명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현지로 조사 나가기 전에 연구진으로부터 연구내용, 질문지의 구성, 표본, 면접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충분히 습득하였다. 대학생집단에 대해서는 집단면접을 하였으며, 제주지역내 전문직업집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지와 응답시 유의사항을 전달한 후 약속된 날짜에 가서 수거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거주 전문직업집단에 대해서는 우편질문서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직업집단들로부터 회수된 질문지(유효질문지)는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들 집단들에 대한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1일 동안 이루어졌다.

〈 표 1.1 〉 조사대상집단과 표집 수

조사대상집단	자료수집방법	배부질문지	유효질문지
제주도내 일반집단	개별면접법	505	505
제주도내 전문직업집단 (대학교 교수) (행정기관 공무원) (방송 및 신문사 언론인) (변호사 및 의사)	자기기입법	125 (50) (30) (35) (10)	74 (32) (19) (17) (6)
제주도내 대학생집단	집단조사법	70	65
제주도의 거주 전문직업집단	우편질문서법	70	43

## 2) 질문지의 구성

질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의 내용을 만들고 연구원 전체의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다. 질문지는 구조화된 질문과 비구조화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sup>2)</sup> 구조화된 질문들은 모두 가능한 응답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비구조화된 질문은 질문만 제시하고 대답은 응답자가 스스로 말하거나 기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개방형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집단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를 위한 것인데 일반집단, 대학생, 전문직업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다

2)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에 행해졌던 질문서들을 많이 참조하였다. 신행철·김진영,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5. (프린트판 조사 연구 보고서); 최명·권태환·홍두승, 「사회조사 10년: 1979~1988」, 198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른 하나는 제주도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직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인데 앞의 질문서 중에서 일부만 가려 뽑아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부록의 질문지를 참조할 것).

가. 정치영역과 관련된 의식

- ① 정치의식
- ② 지방자치의식

나. 경제영역과 관련된 의식

- ①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 ② 개발의식

다. 사회영역과 관련된 의식

- ① 사회의식 일반
- ② 법의식, 언론의식, 사회문제의식
- ③ 사회적 성격

라. 문화 및 정체감 영역과 관련된 의식

- ① 제주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과 문화적 정체의식
- ②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의식

마. 제주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 및 바람직한 제주정신 구현과 관련된 의식 또는 정신

- ① 제주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와 의식
- ② 바람직한 제주인의 의식 또는 정신의 내용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편집, 부호화과정을 거쳐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문항변인별로 빈도분포 분석과 중요한 변인들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관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항별 의식에 있어서 조사집단,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 거주지역 등의 변인과 관련시켜 그 차이를 검토하였다.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 표 1.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주요 변인	범주 별 특성	계
성 별	남자 63.0(433), 여자 37.0(254)	100.0(687)
연 령	30대 미만 27.9(192), 30대 25.9(178), 40대 23.6 (162), 50대이상 22.6(155)	100.0(687)
거주지역	제주시 53.0(364), 서귀포시 14.6(100), 북제주군 14.6 (100), 남제주군 11.6(80), 육지거주 6.2(43)	100.0(687)
성장지역 (18세이전까지)	제주시 34.6(236), 서귀포시 12.5(85), 북제주군 23.8(162), 남제주군 18.4(125), 육지 10.0(68), 해외지역 0.7(5)	100.0(681)
주관적 계층	상층 18.3(126), 중간층 65.8(452), 하층 15.9(109)	100.0(687)
교육수준	중졸 미만 10.9(75), 고졸 42.5(292), 전문대졸 이상 46.6 (320)	100.0(687)
직 업	전문직 12.6(87), 관리직 5.7(39), 전문기술직 5.1(35), 사무직 11.8(81), 생산직 0.9(6), 판매·서비스직 19.1 (131), 농업·수산업직 24.3(167), 대학생 9.5(65), 주부 8.4(58), 무직 2.6(18)	100.0(687)
소득수준 (월/가구)	100만원 미만 27.8(185), 100~150만원 미만 30.8(205), 150~200만원 미만 17.7(118), 200만원 이상 23.7(158)	100.0(666)
종 교	기독교(개신교) 7.8(53), 천주교(카톨릭교) 10.4(71), 불교 36.1(245), 기타(유교 등) 2.8(19), 종교 없음 42.9(291)	100.0(679)

주) ( )안은 사례 수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훨씬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는 전문집단에 속한 응답자가 거의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문직업집단의 표집이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할당표집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변인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령은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표집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교육수준도 전문대졸 이상(대학재학 포함)이 46.6%에 이르고 있다. 고학력수준의 비중이 전체 인구구조상에서의 그것보다 크게 높은 것은 대학생과 전문직업집단을 할당표집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거주지별로는 제주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6.2%이다. 성장지별로는 제주시가 3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관적 계층소속의식에서는 중간층이 65.8%로 가장 많으며 상층, 하층의 비율 순을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는 농업·수산업이 2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판매·서비스직

19.1%, 전문직 12.7%, 사무직(11.8%) 등이다. 마지막으로 월소득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층이 58.6%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고 불교신자가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제3절 기존 연구의 검토

제주도민의 의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한 것은 몇 편에 불과하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분야의 의식에 한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문부 외 4인<sup>3)</sup>의 조사 연구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지역 발전, 일반행정, 국가의식, 통일안보, 배경질문 등 64개 문항에 대하여 질문지법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민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행철·김진영<sup>4)</sup>은 제주인의 의식구조를 질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도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20세 이상의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관광, 정책 의식 등이며, 문항 수는 배경변인별 문항을 포함해서 70개 문항이었다.

김항원<sup>5)</sup>은 제주도민의 언어, 민속, 사회·문화, 정치·경제, 자아 정체성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법, 내용분석법, 질문지법, 관찰법 등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를 행정구역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였다. 분석은 90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 수는 배경변인별 문항을 포함해서 101개 문항이었다.

이외에 제주도민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된 분야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많이 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들 중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태도', '정치사회화', '민주시민의식', '경제의식', '통일의식', '여가의식', '관광의식' 등의 주제를 각각 조사한 연구가 다수 있다.

---

3) 조문부 외,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제주도, 1979.

4) 신행철·김진영, 앞의 글.

5) 김항원, 앞의 글.

## 제2장 제주인의 의식형성과 관련된 제환경의 검토

### 제1절 역사적 환경

제주도(濟州島)의 원주민은 북방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여러 종족과 주변의 여러 도서 지방에서 들어온 종족들이 합해져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에 들어온 여러 종족들은 외부와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절해고도인 이 섬의 동일한 자연환경의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종족의 고유한 문화가 서로 동화·융합하여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역사는 북방대륙 계통을 주축으로 주변도서의 표류민이 혼합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북방 육지부적인 요소와 남방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선사시대(先史時代)인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보면 북방적 요소와 남방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삼성신화(三姓神話)에 나타나는 고양부(高良夫) 삼성의 씨족사회가 발전하여 나중에는 삼씨족의 공동체인 원시국가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탐라국이라 부르게 되었다. 탐라국은 처음에 가야국과 백제와 교류를 하였다. 탐라국은 가야국과 백제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들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탐라국은 백제 무령왕 4년 이전에 백제에 소속되었다. 고구려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정치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구려의 언어와 문화가 전해졌을 것이다. 탐라와 신라와의 공적인 교류는 백제가 멸망한 시기인 66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경주어와 신라의 문화가 탐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건국된 후에 탐라는 고려에 예속되어 고려로부터 간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개성어와 고려의 문화가 탐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불교도 들어오게 되었다. 탐라는 고려 후기 1270년에 몽고군에 항전을 전개했던 삼별초(三別抄)의 최후 근거지가 되었다. 그후 탐라는 1백여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 몽고의 지배를 받는 동안 목마(牧馬)를 중심으로 몽고의 문화와 언어가 탐라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고려말이래 270여년 동안이나 계속된 왜구(倭寇)의 침범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다. 고려가 망한 후에 제주도에 유배 또는 은둔한 유민들이 적지 않았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유배가 계속되었다. 그 밖에 정국(政局)을 기피하거나 은거하기 위한 선비들이 입도영주(入島永住)하였으므로 그들은 제주도의 입도선조(入島先祖)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백제, 신라 및 고려에 예속되면서 반독립적인 형태

로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조선왕조의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으로 조선 초에는 일개 군현(郡縣)으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태조(太祖)는 제주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내지화 정책을 썼으며 파견되는 관원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인조 7년(1629)부터 순조말(1830)까지 조선조말 200여년 동안의 출육금지(出陸禁止) 조치와 철해고도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제주도의 언어와 문화는 변화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언어의 고형태(古形態)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15~16세기 언어들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조말에는 탐관오리의 수탈과 생활고에 시달린 민중들이 자주 민란을 일으켰다.

일제시대에 제주도는 군제(郡制)가 폐지되고 도사제(島司制)를 실시함에 따라 한낱 어업 기지로 간주되었고 전라남도에 완전히 예속되었으며 일제의 경제 수탈정책에 희생되었다.

해방 후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부로 도(道)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도민의 사상적 혼란을 가져왔으며,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은 수만명의 인명 피해와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다. 이 4·3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심어주었고, 이 사건의 희생자와 친척들은 연좌제의 사슬에 묶이어 수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 왔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고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도 집단적 무의식의 실체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요컨대, 제주도(濟州島)의 역사는 한마디로 근경과 시련 및 수탈의 역사였으며 처절한 생존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자연환경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해상(西南海上), 동지나해(東支那海)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북위 약 33도 근처에 위치하여 중위도 지역의 남단에 치우쳐 있다. 북으로 목포와의 거리는 91마일, 남북쪽의 부산 및 대마도와의 거리는 168마일이며 해로상 중국과 일본의 중간 위치에 있다.

총면적은 1,820km<sup>2</sup>이며 동서의 길이는 약 74km, 남북의 길이는 32km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선 전체의 길이는 253km이다. 제주도의 지형은 화산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섬 중앙에는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고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동서사면(東西斜面)은 3~5°의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으로는 약간 급한 경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 주위에 완만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넓은 초원과 360여개의 기

생화산(寄生火山)들이 산재해 있다. 해안선은 단조로우나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는 화산지형으로 투수성(透水性)이 커서 하천은 거의 건천(乾川)이며 영구유수천(永久流水川)은 희귀하다. 토양은 화산회토(火山灰土)로 돌이 많고 물이 땅속으로 쉽게 스며들어서 물이 귀한 만큼 제주도의 농업적 토지 이용은 전작지(田作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토질은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은 낮았다. 발농사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잠수를 하고 남자들은 어업에 종사해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기후는 한반도와 비슷하게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계절풍 기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 최남단의 환해적(環海的) 위치인 관계로 해양성 기후의 성격을 나타내며 연평균 기온이 섭씨 14.7°로 국내에서 가장 따뜻한 편이나 한라산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형적 영향을 받아서 부분 지역적으로 일기의 변화가 심하고 한라산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사이에는 일기 변화가 대체로 크게 나타난다. 또한 바람은 연평균 4.7m/s로 계절풍이 심하여 풍다(風多)의 섬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매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태풍이 불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870mm로 본토 평균 1,246mm보다 30% 정도가 더 많으며 연간 강수량의 60% 정도가 6월에서 9월 사이에 내린다. 이 연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남동해안 지역이 가장 많고 북서해안 지역이 가장 적다. 이 많은 강수량은 바다로 흘러가거나 지표(地表)가 투수성이 강한 현무암이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쉽게 빠져 버린다. 이 지하수는 해안에서 용출되어 음료수로 이용되었으며 해안에 분포된 용천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 발달되었다.

습도는 중앙에 한라산이 솟아 있고 경사가 사면으로 완만하게 뻗어 있으므로 다양한 습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일조시간도 지역과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귀포는 연중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식생(植生)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한라산 남쪽인 서귀포는 겨울철에 일조시간이 길어 원예작물인 감귤과 파인애플 등이 적합한 지역이 되고 있다.

제주사회가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주의 자연환경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의 물과 공기 등은 제주도가 갖는 천혜적 자원이라 할 만하다.

### 제3절 인문사회환경

사회·경제적으로 제주도는 원래 땅이 척박한 데다 바람과 돌이 많아서 농사가 잘 안되

고 흉년이 계속되었으며 항상 생활고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조선조의 조정에서는 양곡을 보내어 진휼(賑恤)하였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어려웠다. 계속해서 닥치는 가뭄과 풍수해에 시달리고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거기에다 탐관오리의 착취와 부역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육지로 유망(流亡)하는 인구가 급증하여 제주도의 인구는 격감하였다. 그래서 조선조 말에는 조정에서 200여년 동안 출육금지령을 내려서 살기 위해 육지로 떠나는 사람들을 강제로 막아야 했다.

일제시대는 그들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수탈이 계속되었으며 많은 제주도민들이 살기 위해서 일본 등 도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후 4·3사건으로 제주도는 황폐화되었으며 그 후 6·25 사변의 영향으로 1950년대까지 제주도민의 생활은 비참하였다.

제주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면 분가시키는 분가주의와 노부모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 생활의지이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상속은 대개 균등하게 분배함이 원칙이다.

제주도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경사회로서 공동체의식이 강했다. 예를 들어보면 향회, 연자매, 용수(用水)의 공동사용과 관리, 수놓음, 향약, 계, 해변 공동관리와 마을 공동목장제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이웃에 경조사 등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며칠씩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제사를 지낸 뒤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또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삼촌이라고 부르고 아랫 사람에게는 조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다.

1960년대 초부터 관광개발과 감귤 등 과수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과 관광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발은 위에서 밑으로 주어지는 하향식 개발이 일관된 기조를 이루어 왔다. 그 결과 개발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대부분의 개발이익도 도외로 유출됨에 따라 도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의 발전은 제주인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줌과 동시에 자립의 기반과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제공하였지만, 급격한 관광개발로 유발된 사회변화는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제주인의 긍정적인 의식과 정신을 크게 손상시켰다.

## 제3장 영역별 제주인의 의식

### 제1절 정치의식: 정치영역과 관련된 의식

#### 1) 정치의식

정치의식이란 정치현상에 대한 태도 내지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징물(symbols)에 대한 심리적 정향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나 정치정향과 동일하게 쓰이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문화는 일반문화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들이 서구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했으나, 나라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태도 또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한다. 즉,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제도 또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식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좋은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정치의식은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 역사 및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 마찬가지로 정도는 다를지라도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정치의식을 보인다. 이 점에서 제주인의 정치의식은 한국민의 정치의식과 유사하면서도 제주인만이 가진 독특한 양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신뢰감은 사회성원들이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신뢰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원들은 정치인들의 주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 순응하고 따라가려 하고, 정치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정치적 신뢰감을 파악하기 위해 <표 3.1>를 살펴보자. 국회의원들은 주민이 원하는 일보다 선거에서 이기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93.3%),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81.0%) 인식되고 있다. 또 선거때 정치인들은 말은 그럴싸하나 당선 후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84.4%)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첫째 문항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 집단별로는 모든 집단이 '그렇다'라는 응답을 많이 하

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은 전부가 긍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문항에서는 '그렇다'라는 반응이 연령별로 30대, 20대이하, 40대, 50대이상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교육수준 변인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다. 마지막 문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하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신뢰감은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1 〉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

문항	응답범주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국회의원들은 주민이 원하는 일보다 선거에서 이기는데 관심이 더 많다.	41.1 (264)	52.2 (336)	5.0 (32)	1.7 (11)	100.0 (643)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일보다 선거에서 이기는데 관심이 더 많다.	31.7 (204)	49.3 (317)	15.4 (99)	3.6 (23)	100.0 (643)
선거때 정치인들은 말은 그럴싸 하나 당선 후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38.2 (245)	46.2 (296)	11.1 (71)	4.5 (29)	100.0 (641)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대에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것을 국민들은 많이 보아왔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당선되기 위해 선거시에 허위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정치인들은 오직 당선되기 위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는 당리당락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절대로 여당으로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당선된 후에는 여당으로 옮긴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도 제주인들로 하여금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정치적 불신감이 극도로 심할 경우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신감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2) 민주 의식

민주의식은 관용성, 타협의식, 묵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관용성(tolerance)이란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의미한다. 타협의식은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지 않고 의견이 다른 남들과도 협력해 갈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 입각하고 있는 이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고 타협해 갈 수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또한 평등성에 입각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권위에 무조건 묵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관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비판해서는 안된다”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가 53.4%, 부정적인 응답자가 46.6%로서, 긍정이 부정보다 조금 많다. 따라서 다수의 견해에 대해 소수가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제주인들은 관용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정말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도 24.1%에 달하고 있다.

타협의식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협상,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5.2%이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에 불과했다. 그런 만큼 응답자들은 정치인들이 협상보다도 양심에 다른 행동을 해야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타당(他黨)과 타협하는 정치인을 ‘사꾸라’로 간주, 부도덕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호신뢰의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양심이나 신념에 따른 행동도 중요하지만 타당과 타협하고 협력해갈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가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가치를 찾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묵종성을 알아보기 위해 “윗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9.4%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80.6%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묵종성이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평등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한 부정을 나타낸 사람도 무려 44.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그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55.9%,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4.1%를 보였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는 내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보다 일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65.4%, ‘그렇지 않다’가 34.6%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정부의 일을 일임한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지도자들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려는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인 전통사회로부터 민주주의적인 근대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적 사회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표 3.2 〉 민주 의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의 사람이 비판해서는 안된다.	24.0 (153)	29.4 (187)	31.6 (201)	15.0 ( 96)	100.0 (637)
정치인은 협상,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71.4 (457)	23.8 (152)	3.1 ( 20)	1.7 ( 11)	100.0 (640)
윗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0 ( 19)	16.4 (105)	36.4 (233)	44.2 (283)	100.0 (640)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그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23.3 (149)	32.6 (208)	27.7 (177)	16.4 (105)	100.0 (639)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는 내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보다 일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28.4 (182)	37.0 (237)	23.4 (150)	11.2 ( 72)	100.0 (641)

위 문항들을 배경변인별로 교차시켜 보면, 첫째 문항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전문직업집단(도내)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관용의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하는 반응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협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문항은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하는 반응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이하, 30대와 50대이상, 40대 순으로 부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반응이 높으며,

조사대상 집단별로는 대학생, 전문직업 집단(도내), 일반집단 순으로 부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넷째 문항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대상집단별로는 긍정적 반응이 일반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문항은 20대이하와 전문대졸이상, 대학생집단이 부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젊을수록 목종성이 약하며, 교육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목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민주의식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비교적 낮은 관용성과 타협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평등지향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민주의식은 아직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으나, 점차 민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참여의식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의식은 정치의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참여의식은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참여의사와 정책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 자신감을 규명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 표 3.3 〉 참여의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나는 제주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28.3 (182)	51.2 (329)	16.9 (109)	3.6 ( 23)	100.0 (643)
나는 도나 시·군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5 (48)	23.2 (149)	41.4 (265)	27.9 (179)	100.0 (641)

〈표 3.3〉은 참여의식을 측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제주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79.5%),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응답자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80년대 후반에야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했으며, 1993년 대통령선거 이후 명실공히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은 권위주의 의식을 벗어나 민주주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응답자들의 반응도 참여할 의사는 높으나, 정치적 자신감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첫째 문항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전문직업집단(도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의지의 경우는 전문직업집단(도내)이 비교적 높고, 20대와 대학생들이 여타 집단보다 비교적 낮은 것이 특이하다. 두번째 문항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부정적 반응을 많이 하고 있다.

#### (4) 후보자 선택기준 및 무소속 당선비율이 높은 이유

제주도민들은 투표시에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는 제주도민들의 투표행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표 3.4>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서와 95년 도지사 선거서의 후보자 선택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3.4>를 보면 응답자들의 국회의원 선거서 고려한 선택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33.6%, '후보자의 개인적 인품' 31.3%, '후보자가 속한 정당' 14.8%, '후보자의 과거 경력' 12.0%, '기타' 3.5%, '후보자의 출신지역' 3.5%, '후보자의 출신학교' 1.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사 선거서의 후보자 선택기준으로서는 '후보자의 개인적 인품' 34.1%, '후보자의 정책' 33.4%, '후보자의 과거 경력' 20.9%, '후보자가 속한 정당' 4.8%, '기타' 2.7%, '후보자의 출신지역' 2.4%, '후보자의 출신학교' 1.2%, '후보자의 종교' 0.5% 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응답자들은 투표시에 '후보자의 정책'과 '후보자의 개인적 인품'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경우 14.8%, 도지사의 경우는 4.8%로서 비교적 낮다. 그리고 후보자의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는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의 과거 경력은 후보자의 능력을 어느 정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개인적 인품과 경력은 대체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인품(능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을 합칠 경우 국회의원 선거서는 43.3%, 도지사 선거서는 55.0%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후보자 개인의 인품(능력)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4 〉 15대 국회의원 선거시와 도지사 선거시 후보자의 선택기준

(단위: %)

선택 기준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정책	33.6(204)	33.4(195)
후보자가 속한 정당	14.8( 90)	4.8( 28)
후보자의 출신학교	1.0( 6)	1.2( 7)
후보자의 개인적 인품	31.3(190)	34.1(199)
후보자의 과거 경력	12.0( 73)	20.9(122)
후보자의 출신 지역	3.5( 21)	2.4( 14)
후보자의 종교	0.3( 2)	0.5( 3)
기타	3.5( 21)	2.7( 16)
계(N)	100.0(607)	100(584)

주1) '기타'에는 혈연·지연 등 연고관계에 의해, 능력, 전반적인 인물 비교, 중앙정당의 영향력, 주변여론 종합, 지역위해 일할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없어서, 금전살포에 의한 감정적인 결정 등이 포함되었다.

2) '투표권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들(국회의원 선거 32명, 도지사 선거 52명)은 제외되었다.

특히, 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개인적 인품(34.2%)이 후보자의 정책(33.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후보자의 과거 경력(20.9%)이 비교적 높으며, 후보자가 속한 정당(4.8%)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의 개인적 인품과 경력을 합친 후보자의 인물(능력)은 55.1%가 되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도지사 선거시에 후보자의 인물(능력)을 보고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95년의 도지사 선거는 정당간의 대결이 아니라 인물간의 대결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면, 조사대상집단별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집단들은 전체 조사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대학생의 경우는 '후보자의 정책'이 43.6%로 '개인적 인품' 20.5%와 '과거 경력' 20.5%를 합친 42.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물보다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후보자의 정당'은 10.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업집단의 경우는 '개인적 인품' 42.3%, '과거 경력' 8.5%로 이 둘을 합치면 50.8%를 보임으로써 '후보자의 정당' 21.1%, 후보자의 정책 18.3%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직업집단이 여타 집단보다 가장 인물위주로 투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들은 후보자의 정책보다 정당을 더 우선하여 투표하고 있음이 여타 집단과는 다르다.

정당보다는 인물 본위로 투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제주인들이 비합리적인 연고주의에 입각해서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sup>6)</sup> 연고를 의미하는 후보자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종교 등이 대단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나 도지사 선거 모두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비율이 각각 33.6%, 33.4%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인물보다 정책이 더 높게 나타남)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투표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민들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고 따라서 정당에 대한 귀속감도 거의 없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기존 정당들이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만한 능력있는 훌륭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지 못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제주도는 제5공화국 이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도지사 선거 포함)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바로 제주도민의 인물본위 투표성향과 정당 귀속감의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3.5>를 통해 검토해 보자. <표 3.5>에는 제주도에서 무소속 당선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적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정당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서'(39.3%), '정당소속 후보보다는 무소속 후보들의 인물됨됨이가 나아서'(36.9%)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당소속 후보보다는 무소속 후보에 더 친근감이 가서'(11.2%), '기타'(6.7%),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 정당불신 등'(5.9%)의 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높기 때문에, 후보들의 정당보다는 인물 됫됨이를 보고 투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 항에서 설명한 분석이 매우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학적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사대상집단별인 바, '정당 거부감'은 일반집단 40.0%, 대학생 60.7%, 도외 전문직업집단 32.6%, 도내 전문직업집단 21.9%를 보여 대학생들이 여타 집단보다 무소속 후보의 당선률이 높은 이유를 정당 거부감에 기인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정당거부감이 가장 높고, 전문직업집단이 정당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후보의 인물이 나아서'는 일반집단 37.8%, 대학생 19.6%, 도내 전문직업집단 49.3%, 도외 전문직업집단 27.9%로 전문직업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타 집단들보다도 도내 전문직업집단들은 무소속후보의 인물이 낮기 때문에 당선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학생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소속후보의 인물보

6)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참고하여 투표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85.5%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으며, 반면에 연고와 관련된 부모님(3.1%), 배우자(3.0%), 직장동료(1.7%), 종친회·친지(0.8%)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 정당거부감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무소속후보의 당선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대학생들의 정당거부감이 가장 높은 것은 그 만큼 대학생들의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5 〉 무소속 당선비율이 높은 이유

(단위: %)

무소속 당선 이유	비율(N)
정당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서	39.3(259)
정당소속 후보보다는 무소속 후보들의 인물됨됨이가 나아서	36.9(243)
정당소속 후보보다는 무소속 후보에 더 친근감이 가서	11.2( 74)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 정당불신, 당에 대한 실망, 정당소속 불신, 공약사항 무시하고 금품 살포	5.9( 39)
기타	6.7( 44)
계	100.0(659)

주) '기타'에는 정당이 제주도에 대한 정책 제시 부족, 정당은 제주도민에 관심이 없다, 무소속 후보에 대한 믿음감, 무소속 후보의 공약이 더 나아서, 정당에서 후보 선출 잘못, 제주도민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성향 때문에, 정당 출신 중 제주 출신의 큰 인물이 없어서 등이 포함되었다.

정당소속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들의 인물이 더 낫다는 주장에 36.9%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음은 기존 정당들이 후보 공천 문제에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정당이 제주도에 대한 정책 제시가 부족했다거나, 정당은 제주도민에 관심이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기존 여·야 정당들이 제주도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도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원이 전부 당선되었고 야당후보들도 무소속 후보보다는 득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된 이유도 도민들이 정당을 선호해서 투표했다기보다는 인물위주의 선택을 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 상황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시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표 3.6〉

와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관련개입'과 '물량선심공세'가 있었다고 보는 응답자는 근 60%에 이르고 있어 관련개입과 물량선심공세가 적지 않게 행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전살포'도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상대후보 헐뜯기'는 대단히 많이 (84.8%)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많았다'가 30.8%인 것을 보면 상대후보에 대한 헐뜯기는 몹시 심하게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제시'는 응답자의 90%를 넘어서고 있어 각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의 남발 정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전살포', '텔레비전의 편향보도', '신문의 편향보도'도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항목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 6월에 행해진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7> 참조).

< 표 3.6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에 행해진 일들

(단위: %)

문항 \ 응답범주	아주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거의 없었다	계
관련개입	13.0 ( 82)	46.7 (295)	40.3 (255)	100.0 (632)
물량선심공세	12.4 ( 79)	50.5 (322)	37.1 (237)	100.0 (638)
금전살포	13.4 ( 85)	44.3 (282)	42.3 (269)	100.0 (636)
상대후보 헐뜯기	30.8 (197)	54.0 (345)	15.2 ( 97)	100.0 (639)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제시	32.8 (208)	57.3 (364)	9.9 ( 63)	100.0 (635)
텔레비전의 편향보도	11.8 ( 75)	44.8 (285)	43.4 (276)	100.0 (636)
신문의 편향보도	11.5 ( 73)	47.4 (301)	41.1 (261)	100.0 (635)

표의 자료들로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여전히 관련개입, 물량선심공세, 금전살포, 텔레비전과 신문의 편향보도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화가 되었어도 선거풍토는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관련개입이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 40.3%, 금전살포는 42.3%, 텔레비전의 편향보도 43.3%, 신문의 편향보도 41.0%(도지사 선거의 경우는 각각 37.0%, 38.3%, 42.2%, 37.1%)를 보임으로써 비교적 긍정적으로 선거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관련개입이나 물량공세는 나아지고 있으나 상대후보에 대한 험뜯기와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제시 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아직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7 〉 작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시에 행해진 일들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아주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거의 없었다	계
관련개입		11.0 ( 69)	52.1 (328)	37.0 (233)	100.0 (630)
물량선심공세		9.5 ( 60)	57.5 (361)	33.0 (207)	100.0 (628)
금전살포		10.8 ( 68)	50.9 (319)	38.3 (240)	100.0 (627)
상대후보 험뜯기		27.7 (174)	54.7 (344)	17.6 (111)	100.0 (629)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제시		27.4 (173)	58.6 (370)	14.0 ( 88)	100.0 (631)
텔레비전의 편향보도		9.5 ( 60)	48.3 (306)	42.2 (266)	100.0 (631)
신문의 편향보도		15.3 ( 96)	47.6 (299)	37.1 (233)	100.0 (628)

(6) 선거로 인한 갈등

〈표 3.8〉에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작년 6월 실시된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한 갈등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응답자가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응답자보다 많으나,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다'고 보는 응답자도 13.0%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장 선

거로 인해 어느 정도의 갈등이 파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갈등은 국회의원 선거보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응답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 표 3.8 〉 선거로 인한 갈등 정도

(단위: %)

갈등 정도	국회의원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다	6.3( 36)	13.0( 76)
갈등이 다소 발생했다	28.5(163)	33.7(197)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61.9(354)	49.7(291)
갈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3.3( 19)	3.6( 21)
계(N)	100.0(572)	100(585)

갈등의 내용을 보면,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감정, 지역 파벌주의'가 3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신공격으로 인한 감정대립, 타후보 비방, 반목, 시기, 개인감정, 상호불신'이 26.2%, '이해관계, 파벌형성'이 10.9%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나타난 갈등은 지역감정, 지역파벌주의, 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인한 감정대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선거로 인해 제주도내에서도 동-서간, 외지인과 도내인간에 지역감정이 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인신공격이 가열화되어 상호불신 등 감정대립도 심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요컨대, 선거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올바른 대리자를 뽑는 하나의 축제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제주도민에게 있어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싸움이며, 지역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정당당당하게 정책 대결을 하려는 태도가 매우 요청되며, 유권자들도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7)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갈등의 내용이 '혈연, 지연에 얽매임, 지역적 편중 심화, 지역감정, 지역간 발전의 차이'(38.3%), '상대후보 비방, 인신공격, 개인적 감정'(27.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8) 갈등의 주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야 정당간, 후보자간, 각 후보자의 종친간'(43.6%), '지역(동-서, 남-북), 외지인과 도내인간, 후보자 출신지역간'( 21.8%), '선거운동원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간, 후보자와 언론간, 언론사가 특정후보 지지'(1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여-야후보자간'(32.8%), '동-서 지역간, 후보자의 출신지역간'(28.7%), '정당운동원간'(14.5%), '주민간, 유권자간, 친구간'(1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9 〉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한 갈등 내용

(단위: %)

갈 등 내 용	비율(N)
출마기준에 따른 갈등, 공천문제	5.5(10)
지역감정, 지역 파벌주의	37.7(69)
이해관계, 파벌형성	10.9(20)
공권력 투입과 당선무효설(정부-후보자), 정치적 압력	2.2( 4)
후보자에 대한 편향보도(언론-후보), 언론사가 특정후보지지	3.8( 7)
혈연관계로 인한 선거운동 과열	4.9( 9)
인신공격으로 인한 감정 대립, 타후보 비방, 반목, 시기, 개인 감정, 상호불신	26.2(48)
당선자 영입문제	3.8( 7)
정책문제	4.9( 9)
계	100.0(183)

주) 이 표의 내용은 앞의 〈표 3.8〉에서 '갈등이 심하게 또는 다소 발생했다'고 보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것이다.

## 2) 지방자치의식

우리 나라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도 민들이 그 동안 이루어져온 지방자치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려 한다.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지도자상, 기초 및 광역의원에 대한 평가, 기초 및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 공무원에 대한 평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식을 분석하려 한다.

### (1) 지역사회의 지도자상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3.10〉에 제시된 바와 같은 질문을 해 보았다. 전체 반응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지도자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만두는 것이 좋으며(60.1%), 지도자는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맡은 일이나 잘 해야 하고(98.1%), 출세에 지장이 있더라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94.1%)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지역사회의 마찰을 없애려고 너무 신경을 쓰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으며 (71.5%),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 고장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76.4%)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0 〉 제주지역사회의 지도자 상

(단위: %)

문항	응답범주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계
지역사회의 지도자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만두는 것이 좋다.		18.6 (128)	41.5 (285)	29.4 (202)	10.5 ( 72)	100.0 (687)
지도자는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맡은 일이나 잘 해야 한다.		71.7 (491)	26.4 (181)	1.3 ( 9)	0.6 ( 4)	100.0 (685)
출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지도자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도 좋다.		1.8 ( 12)	4.1 ( 28)	23.1 (157)	71.0 (483)	100.0 (680)
지도자가 지역사회의 마찰을 없애려고 너무 신경을 쓰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		20.9 (142)	50.6 (344)	24.0 (163)	4.5 ( 31)	100.0 (680)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 고장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26.0 (178)	50.4 (345)	19.2 (131)	4.4 ( 30)	100.0 (684)

따라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제주사회의 지도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자리나 출세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하며, 그리고 나라 전체의 문제보다 지역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항들을 배경변인별로 보면 문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둘째 문항에서는 50대이상의 경우는 전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말 그렇다'는 반응도 40대를 제외하고는 72%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집단별로는 대학생집단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문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반

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넷째 문항에서는 중졸이하와 복제주군 거주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항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기초(시·군의회 의원) 및 광역의원(도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

기초의원(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응답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했다. <표 3.11>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표 3.11 > 기초의원(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관광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4.4 (27)	51.6 (320)	37.2 (230)	6.8 (42)	100.0 (619)
농업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4.1 (25)	40.4 (249)	45.8 (282)	9.7 (60)	100.0 (616)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정책포함)		2.1 (13)	37.9 (233)	47.8 (293)	12.2 (75)	100.0 (614)
시, 군과의 관계		3.4 (21)	48.3 (295)	42.1 (257)	6.2 (38)	100.0 (611)
시, 군의정 일반		4.1 (25)	48.8 (299)	41.2 (252)	5.9 (36)	100.0 (612)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관광과 관련된 일', '시·군과의 관계', '시·군 의정 일반'의 항목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일',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의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들은 40%를 조금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기초의원들이 '관광정책', '시·군과의 관계', '시·군의정 일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비교적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정책',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기초의원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 3.12>는 광역의원들이 항목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항목은 '관광과 관련된 일', '도와의 관계', '도의정 일반' 등인데, '관광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61.9%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과 관련된 일'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은 40%를 약간 넘어서는 응답자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앞의 기초의원에 대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3.12 > 광역의원(도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관광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6.8 (42)	55.1 (340)	32.7 (202)	5.4 (33)	100.0 (617)
농업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3.8 (23)	40.8 (251)	45.5 (280)	9.9 (61)	100.0 (615)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정책포함)		2.9 (18)	37.8 (231)	48.1 (294)	11.2 (68)	100.0 (611)
도와의 관계		4.9 (30)	49.7 (301)	39.6 (240)	5.8 (35)	100.0 (606)
도의정 일반		3.1 (19)	50.1 (303)	41.5 (251)	5.3 (32)	100.0 (605)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3) 기초(시장, 군수) 및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에 대한 평가

<표 3.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경우가 앞에서 논의한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평가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관광과 관련된 일'과 '시·군행정 일반'의 경우는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과 관련된 일'은 52.0%,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은 49.5%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표 3.14>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과 관련된 일'과 '도행정 일반'이 제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와의 관계', '농업정

책', '사회복지정책'은 부정적인 평가도 43.5%, 44%, 46.5%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13 〉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에 대한 평가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관광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8.7 (54)	56.5 (352)	31.8 (198)	3.0 (19)	100.0 (623)
농업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5.6 (35)	46.4 (289)	40.6 (253)	7.4 (46)	100.0 (623)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정책포함)		5.3 (33)	44.2 (274)	43.2 (268)	7.3 (45)	100.0 (620)
시, 군의회와의 관계		4.4 (27)	52.9 (326)	39.3 (242)	3.4 (21)	100.0 (616)
시, 군행정 일반		5.2 (32)	56.5 (348)	35.1 (216)	3.2 (20)	100.0 (616)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 표 3.14 〉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에 대한 평가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관광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19.5 (121)	53.8 (334)	24.3 (151)	2.4 (15)	100.0 (621)
농업과 관련된 일(정책포함)		11.9 (74)	44.1 (274)	37.1 (230)	6.9 (43)	100.0 (621)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정책포함)		6.7 (41)	46.8 (289)	40.0 (247)	6.5 (40)	100.0 (617)
도의회와의 관계		5.7 (35)	50.8 (312)	39.6 (243)	3.9 (24)	100.0 (614)
도행정 일반(민원 포함)		9.9 (61)	50.7 (312)	34.3 (211)	5.1 (31)	100.0 (615)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4)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제주도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표 3.15>를 통해 검토해 보면, 응답자들은 공무원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명감 부족', '적당주의', '관료의식', '부정부패', '상사에게 아부', '주민 외면', '능력 부족' 등의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다소 있다', '매우 많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여러모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주도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특히, '사명감 부족', '적당주의', '관료의식', '상사에게 아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8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이 점에 대한 시정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15 >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단위: %)

응답범주 문항	매우 많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계
사명감 부족	22.5 (135)	68.0 (409)	8.3 ( 50)	1.2 ( 7)	100.0 (601)
적당주의	31.3 (194)	59.4 (369)	8.2 ( 51)	1.1 ( 7)	100.0 (621)
관료의식	38.1 (232)	51.0 (310)	9.9 ( 60)	1.0 ( 6)	100.0 (608)
부정부패	16.1 ( 94)	59.7 (349)	21.0 (123)	3.2 (19)	100.0 (585)
상사에게 아부	24.3 (143)	62.7 (369)	11.5 ( 68)	1.5 ( 9)	100.0 (589)
주민외면	17.3 (107)	60.0 (371)	19.9 (123)	2.8 (17)	100.0 (618)
능력부족의 문제	16.9 ( 96)	62.8 (358)	17.4 ( 99)	2.9 (16)	100.0 (570)

주1)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2)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제외.

(5)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는 <표 3.16>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 '농어촌 발전', '교육', '자연보호', '보건사업', '질서와 치안', '문화보전 및 발전', '관광개발', 등의 순으로 지금보다 더 투자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 표 3.16 >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

(단위: %)

응답범주 문항	지금보다 더 써야 한다.	지금대로가 좋다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	모르겠다	계(N)	평균
교육	82.4 (562)	12.0 ( 82)	2.8 (19)	2.8 (19)	100.0 (682)	0.935
보건사업	78.7 (535)	17.1 (116)	1.0 ( 7)	3.2 (22)	100.0 (680)	0.974
주택건설	39.8 (270)	45.2 (307)	10.2 (69)	4.8 (33)	100.0 (679)	0.593
질서와 치안	76.2 (519)	18.9 (129)	2.0 (13)	2.9 (20)	100.0 (681)	0.951
농어촌 발전	84.0 (573)	12.9 ( 88)	0.6 ( 4)	2.5 (17)	100.0 (682)	0.986
문화보전 및 발전	71.3 (485)	24.4 (166)	1.2 ( 8)	3.1 (21)	100.0 (680)	0.968
자연보호	80.1 (547)	16.7 (114)	1.3 ( 9)	1.9 (13)	100.0 (683)	0.968
사회복지	85.5 (583)	11.4 ( 78)	0.9 ( 6)	2.2 (15)	100.0 (682)	0.980
관광개발	70.6 (483)	20.5 (140)	5.7 (39)	3.2 (22)	100.0 (684)	0.851

주1) 위 표는 "다음 각 일들에 대하여 제주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써야 할까요?"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2) 평균점수는 '지금보다 더 써야 한다' 1, '지금대로가 좋다' 0,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 -1, '모르겠다' 0을 주어 산출되었다. 평균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지금보다 더 써야 한다는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정도가 높다.

한편, 문항별 우선 순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응답의 비율을 묶어 평균을 내보면 '농어촌 발전', '사회복지', '자연보호', '문화보전 및 발전' 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것은 '주택건설'이다.

요컨대, 응답자들은 지방정부가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발전', '사회복지', '자연보호', '문화보전', '보건사업', '질서와 치안', '교육' 등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제2절 관광 및 개발의식: 관광·지역개발 영역에 관련된 의식

### 1)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제주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제주도 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제주도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제주도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표 3.17>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전체 반응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관광개발의 결과 제주지역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76.8%). 그러나 관광개발로 얻어진 이익이 도민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88.8%),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77.2%), 관광개발로 미풍양속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81.2%)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관광개발의 속도가 너무 빠르며(47.8%), 현재 관광개발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91.5%), 현재 추진중인 지구별 관광개발을 바람직한 개발전략이라고(69.1%) 보고 있다. 또한 제주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 부조리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고(92.4%), 앞으로 제주도 관광사업이 염려된다(74.9%)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의 강화('정말 그렇다' 60.3%)와 관광 부조리 뿌리뽑기('정말 그렇다' 65.2%)에 대해서는 그 반응의 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항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관련시켜 보면 변인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이익의 분배에 관련된 둘째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다른 어느 학력층보다 부정적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간층이 가장 비판적이다. 이러한 반응은 조사대상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집단과 대학생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부정적이다.

관광개발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나타내는 세번째 문항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반영 정도가 낮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미풍양속의 파괴와 관

련해서는 20대이하층, 중간층, 대학생층이 가장 비판적이다.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조사대상집단보다도 대학생집단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 표 3.17 〉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관광개발의 결과로 제주 지역은 육지부의 농촌이나 도시에 비해 살기가 좋아졌다.		21.2 (145)	55.6 (380)	20.9 (142)	2.3 ( 16)	100.0 (683)
관광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이익이 도민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		2.0 ( 13)	9.2 ( 59)	58.7 (376)	30.1 (193)	100.0 (641)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1.5 ( 10)	21.3 (145)	60.6 (412)	16.6 (113)	100.0 (680)
관광개발로 미풍양속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30.8 (211)	50.4 (345)	15.9 (109)	2.9 ( 19)	100.0 (684)
현재의 제주도 관광개발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다.		13.2 ( 90)	34.6 (235)	43.1 (293)	9.1 ( 62)	100.0 (680)
현재 관광개발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60.3 (413)	31.2 (214)	7.2 ( 49)	1.3 ( 9)	100.0 (685)
현재 추진중인 지구별 관광개발은 바람직한 개발전략이다.		14.8 (100)	54.3 (367)	27.8 (188)	3.1 ( 21)	100.0 (676)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부조리를 뿌리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5.2 (446)	27.2 (186)	6.3 ( 43)	1.3 ( 9)	100.0 (684)
앞으로 제주도 관광산업이 염려된다.		27.0 (184)	47.9 (326)	20.3 (138)	4.8 ( 33)	100.0 (681)

주) \*의 문항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구별 관광전략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주관광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간층이 더 염려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응답자들은 관광개발의 결과로 외형적인 삶은 나아졌으나, 개발 이익의 결과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영향으로 미풍양속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강화와 관광 부조리의 근절은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주관광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2) 관광개발의 주체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의 문제는 관광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3.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 관광개발의 주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개발이 좀 늦더라도 개발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80.9%에 이르고 있으며,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개발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7%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료로 유추해 볼 때 응답자들은 개발이 늦어진다고 해도 개발의 주체는 역시 도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표 3.18 > 제주관광개발의 주체

(단위: %)

제주관광개발의 주체	비율(N)
개발이 좀 늦더라도 개발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한다	80.9(543)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개발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18.7(125)
무응답	0.4( 3)
계	100.0(671)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개발이 좀 늦어도 개발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주관적 계층별로는 계층수준이 낮을수록 도민 주체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 조사대상집단별로 보면 모든 집단에서 도민 주체의 개발을 원하는 빈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생집단이 더욱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응답자 대부분이 개발 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하층 및 대학생들이 더욱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상층 및 전문직업집단이 개발주체는 누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 3) 관광개발에 따른 문제

제주사회에서 급속한 관광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켜왔는데, 이러한 문제들 중에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표 3.19>에는 7개의 문항들에 대해 해결을 서둘러야 할 중요도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다.

< 표 3.19 > 관광개발에 따른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중요 순위)

(단위: %)

문항	중요 순위			
	첫째	둘째	셋째	평균
청소년 비행, 성도덕 타락 등 사회문제	35.2 (240)	13.1 ( 89)	15.8 (106)	1.474
전통문화 파괴	8.2 ( 56)	14.0 ( 95)	9.3 ( 62)	0.617
자연환경 파괴	27.2 (185)	24.6 (167)	17.5 (117)	1.477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	11.6 ( 79)	23.5 (159)	17.2 (115)	0.984
빈부격차	2.6 ( 18)	5.5 (37)	8.7 ( 58)	0.273
외지인의 토지과다 소유	12.0 ( 82)	13.9 ( 94)	19.1 (128)	0.827
외부자본의 과다유입 문제	3.1 ( 21)	5.5 ( 37)	12.4 ( 83)	0.269
계(N)	100.0 (681)	100.0 (678)	100.0 (669)	

주) 평균은 중요순서 첫째에는 3점, 둘째에는 2점, 셋째에는 1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0~3점이 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의 순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개발로 인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첫째의 것으로는 '청소년 비행, 성도덕 타락 등 사회문제' 35.2%, '자연환경 파괴' 27.2%, '외지인의 토지 과다 소유' 12.0%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으로는 '자연환경 파괴' 24.6%,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 23.5%, '외지인의 토지 과다 소유' 13.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지인의 토지 과다 소유' 19.1%, '자연환경 파괴' 17.5%,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 17.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응답 순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를 묶어 평균 점수를 산출해 보면 '자연환경 파괴', '청소년 비행, 성도덕 타락 등 사회문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들 문제가 그 동안 급속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 중 가장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과 '외지인의 토지 과다소유'도 비교적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외부자본의 과다유입 문제'와 '빈부격차'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의 내용은 해결되어야 할 상대적 중요성의 순서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 4) 개발정책에 대한 태도

개발정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태도는 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표 3.20>은 환경보전과 개발의 관계를 비롯한 개발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태도 또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반응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제주도의 개발정책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77.7%), 제주도의 많은 토지가 외지인들에게 넘어간 것을 염려(87.1%)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중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74.6%에 이르고 있다. 한편, 그 동안 개발과 보존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보인 바 있는데, 과반수를 넘어선 응답자가 보존과 개발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46.2%를 보이고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의 해제 문제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응답자들은 그 동안의 개발정책이 소수에게 유리하게 되어왔다고 비판하고 있고, 개발로 인해 토지가 외지인들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존과 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특히, 중산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3.20 〉 개발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N)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29.0 (198)	48.7 (332)	18.3 (125)	4.0 ( 27)	100.0 (682)
나는 제주도의 많은 토지가 외지인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2.8 ( 19)	10.1 ( 69)	16.0 (109)	71.1 (485)	100.0 (682)
보존과 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0.5 ( 72)	35.7 (244)	37.7 (258)	16.1 (110)	100.0 (684)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가 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9 (149)	33.2 (226)	32.1 (218)	12.8 ( 87)	100.0 (680)
환경보전을 위해 증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5.5 (242)	39.1 (266)	20.1 (137)	5.3 ( 36)	100.0 (681)

이러한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부록 참조). 가령 개발과 보존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셋째 문항을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크다.

#### 5)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

개발을 위한 자본의 조달은 현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표 3.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도민들은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 포함), 기업 및 주민의 자본으로 조달'이 54.6%로 과반수 이상을 보여 대체적으로 지방정부, 기업, 주민의 3자가 함께 주도하는 이른바 제3섹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기업과 주민의 자본으로 조달'이 16.4%, '외지기업 자본과 제주도기업 자본으로 조달'도 16.3%를 보이고 있어 기업과 주민의 합작, 외지기업과 제주도기업 간의 합작도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지기업만의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나, '기업자본을 배제하고 순수 제주도 주민만의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은 각각 2.6%, 4.4%를 보이고 있어, 외지기업만의 자본이나 순수 주민자본에 의한 개발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지기업의 자본만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하

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렇다고 순수 주민의 자본만으로는 조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21 〉 제주도의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

(단위: %)

자본 조달 방법	비율(N)
외지기업의 자본으로 조달	2.6( 18)
외지기업 자본과 제주도기업 자본으로 조달	16.3(111)
제주도기업과 주민의 자본으로 조달	16.4(112)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자본으로 조달	5.7( 39)
기업자본을 배제하고 순수 제주도 주민의 자본으로 조달	4.4( 30)
지방정부(중앙정부 포함), 기업 및 주민의 자본으로 조달	54.6(373)
계	100.0(683)

결국, 앞 항에서 응답자들 대다수가 개발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시켜 보면, 제주도 개발은 기업과 정부만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도 개발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공동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6) 개발방향 및 속도

보존과 개발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의 방향과 속도는 개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조절해야 할 문제이다. 과거의 개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개발 방향과 속도에 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폐해도 컸기 때문이다.

〈 표 3.22 〉 개발방향 및 속도

(단위: %)

개발방향 및 속도	비율(N)
환경을 다소간 해치더라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개발한다	3.2( 22)
환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되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개발한다	72.0(493)
환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되 적극적으로, 빠르게 개발한다	22.5(154)
현재 개발중인 것을 제외하고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2.3( 16)
계	100.0(685)

〈표 3.22〉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환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되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개발한다”는 입장을 보여 응답자 대다수가 개발은 꼭해야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앞 항의 〈표 3.20〉에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중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74.6%의 사람들이 찬성한 결과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되 적극적으로,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2.5%나 되고 있어 환경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개발을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다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도 개발이 환경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앞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요컨대, 제주도에서 개발은 꼭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보존이 우선 고려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개발속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조사대상집단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집단 74.2%, 대학생 83.1%, 전문직업집단(도내) 58.1%, 전문직업집단(도외) 53.5%를 보여 대학생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도외지역 전문직업집단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대학생들이 가장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집단 20.7%, 대학생 12.3%, 전문직업집단(도내) 36.5%, 전문직업집단(도외) 34.9%를 보여 도내외의 전문직업집단이 적극적이며 빠르게 개발하는 것에 여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3절 사회의식: 사회영역과 관련된 의식

사회의식은 사람들의 일상적 사회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일상생활은 미시적인 개인과 거시적인 사회구조가 마주치는 시간적, 공간적 영역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일상적 활동을 조직화하거나 거시적 사회구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식은 중요한 행동의 준거틀을 형성한다. 본 절에서는 분배적 정의, 사회적 성격, 세대간 격차, 가정의례, 법규범 등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여 제주인의 사회의식의 실상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 1) 분배에 대한 의식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의식은 직업 및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성원들이 사회적 분배체계의 정당성에 대해 갖는 의식을 총칭한다. 분배정의에 대한 의식은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획득하는 보상과 분배에 대한 경험과 같은 미시적 차원과 관련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사회체계의 분배와 보상체계와 같은 거시적 차원과 결합되면서 형성된다. 사회성원들은 이런 저런 유형의 성공가치를 소유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부(富)가 가장 중요한 성공가치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의식도 이러한 가치분배체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연관될 수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돈의 중요성, 정당한 대우, 노력에 대한 신뢰성, 빈부의 격차,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표 3.23>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 표 3.23 〉 분배적 정의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제주사회는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14.8 ( 95)	37.4 (240)	39.2 (251)	8.6 (45)	100.0 (642)
제주사회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17.8 (114)	47.2 (303)	30.6 (196)	4.4 (28)	100.0 (641)
제주사회는 사람들간에 비교적 빈부의 차이가 적다. *		9.8 ( 67)	62.9 (430)	22.3 (152)	5.0 (34)	100.0 (683)
부자들의 대부분의 재산은 정당한 노력의 댓가로 얻어진 것이다.		4.3 ( 27)	25.3 (161)	54.0 (344)	16.4 (49)	100.0 (635)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생활마저 어려워 가는 듯하다.		15.4 ( 99)	49.3 (317)	30.9 (199)	4.4 (28)	100.0 (643)

주) \*를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해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과반수 이상(52.2%)이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64.0%)고 보고 있다. 이 두 문항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은 배경변인별로 다소 상이하다. 앞의 문항에 대해서는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수준이 낮을수록 긍정하는 응답

(‘그렇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직업집단(도내 거주)의 경우는 부정하는 응답(‘그렇지 않다’)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뒤의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긍정하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대학생집단은 다른 조사대상집단들에 비해 부정하는 응답율이 높다.

제주사회에서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는 72.7%가 비교적 적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적었던 제주사회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은 다른 변인들과 교차시켰을 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가령 50대 이상의 연령층, 중졸이하의 학력층,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거주자, 전문직업집단(도의 거주)이 다른 층에 비해 빈부의 격차가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사람들이 70.4%에 이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런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층이, 교육정도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생활마저 어려워 가는 듯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7%가 ‘그렇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학력수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높다. 조사대상자별로는 일반집단과 대학생집단이 전문직업집단보다 문항내용에 대해 더 긍정적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간의 개발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주어진 이른바 ‘개발이득’을 얻은 사람이 적지 않으며, 이들의 부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결과로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노력의 결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고주의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적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산업화과정 속에서도 그 위세를 잃음이 없이 사회관계속에서 다른 어떤 요인들 못지 않게 중요한 사회학적 범주로 작용하였다. 제주사회의 경우 지역적 고립성과 협소성과 같은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고주의는 일상생활의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연줄망의 역할을 하였다. 연고주의가 모두 나쁜 것이라고 폄하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연대성은 나름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연고주의는 합리성을 결여한 채 편협적이고 맹목적인 연대의 힘을

통하여 사회관계의 유지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능적 통합성을 담보해 낼 수가 없게 된다. 보편적이고 개방적, 진취적 가치와 의식이 더 없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연고주의는 극복되어야 하는 생활원리의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표 3.24〉를 통해 그 현상을 들여다보면, 제주사회에서 연고주의적 사회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제주사회에서만 유독 강하다고 단언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고주의적 현상은 한국사회 일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지역사회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공서 일은 아는 사람을 통하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86.4%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사람들이 연줄을 찾아 일을 처리하려는 면이 강한 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이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관공서 일처리와 연관된 앞의 문항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거주자가, 조사대상집단별로는 대학생이 긍정하는 응답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연줄에 의한 일처리를 측정하는 뒤의 문항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30대층이, 교육정도에서는 중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 이 동조적인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있다.

〈 표 3.24 〉 연고주의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관공서 일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손쉽게 해결된다.		34.7 (237)	51.7 (353)	10.5 ( 72)	3.1 (21)	100.0 (683)
제주사람들은 연줄을 찾아서 일을 처리하려는 면이 강한 편이다.		34.8 (239)	52.1 (358)	11.2 ( 77)	1.7 (12)	100.0 (686)
제주사회에서는 승진이나 성공하기 위해서 아부할 줄 알아야 한다.*		14.5 ( 93)	52.3 (336)	25.9 (166)	7.3 (47)	100.0 (642)
제주사회에서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가 성공하는 데 중요하다.		13.0 ( 89)	41.8 (285)	37.0 (252)	8.2 (56)	100.0 (682)

주) \*는 제주거주 응답자들에게만 사용되었다.

연줄과 연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만큼 승진이나 성공에서 연줄망이 크게 작용하며, 한 예로 고등학교 출신배경이 성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승진이나 성공을 위해 아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자중 66.8%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연령별로는 30대이하층에,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 제주도 거주자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의 마지막 문항에 대해서는 중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층이, 주관적 계층에서는 상층이 긍정하는 대답을 더 많이 하고 있다.

〈 표 3.25 〉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점수)

문항 \ 중요순서	첫째	둘째	셋째	평균 I(N)	평균 II
돈이 없다(금력).	50.7	24.4	24.9	2.26(353)	1.13
연고관계가 좋지 않다(연고관계).	37.4	36.1	26.5	2.11(230)	0.71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가문).	17.5	35.1	47.4	1.72( 57)	0.14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학벌).	27.6	48.0	24.4	2.03(196)	0.58
직업선택을 잘못했다(소질 및 적성).	20.8	44.7	34.5	1.86(168)	0.46
높은 사람을 잘 사귀지 못했다(처세술).	13.7	40.2	46.1	1.67(117)	0.29
사회전체의 제도가 나쁘다(제도).	23.8	31.2	45.0	1.79(160)	0.42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모자란다(능력).	44.7	26.6	28.7	2.16(394)	1.24
노력을 하지 않는다(노력).	26.4	38.1	35.5	1.91(273)	0.76
운이 나쁘다(운).	12.4	18.5	69.1	1.43( 81)	0.17

주1) <평균 I>은 첫째에 3, 둘째에 2, 셋째에 1점을 주어 해당 문항을 선택된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 얻은 평균점수이다. 반면에 <평균 II>는 해당 문항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들(687명)을 기초로 하여 얻은 평균 점수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2)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중요 순위가 높다.

이러한 설명방식을 <표 3.25>를 통해 검토하여 보면 그 적합성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문항별로 볼 때, 첫째의 선택에서는 '금력부족'(50.7%)과 '능력과 실력의 부족'(44.7%)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둘째 선택에서는 '학벌'(48.0%), '직업선택의 잘못'(44.7%), '처세술'(40.2%), '노력 없음'(38.1%), '가문'(35.1%) 등의 순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 선택에서는 '운'(69.1%),

'처세술'(46.1%), '사회제도'(45.0%) 등의 순으로 열거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주의깊게 들여다 보아야 할 부분은 '연고관계', '학벌', '처세술', '가문' 등과 같은 문항들이다. 이들은 모두 연고관계 또는 연고주의 개념 속에 포괄될 수 있는 지표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합쳐보면 이 비율이 대단히 커짐을 알 수 있다. 해당 문항에서 사람들이 매긴 중요성 순위들을 평균으로 나타내보면(평균 I), 2점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금력' 2.26, '능력과 실력의 부족' 2.16, '연고관계' 2.11, '학벌' 2.03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평균은 해당 문항을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 문항에 부여된 순위들을 기초로 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응답의 '강도'(strength) 만을 말해줄 뿐 보편성 또는 일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편적, 일반적 지지의 정도를 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를 기초로 평균을 내볼 필요가 있다(평균 II). 여기에서는 '능력과 실력의 부족', '금력부족', '노력 없음', '연고관계', '학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요도의 순위가 약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고주의가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회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법의식과 불신의식

특정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규범은 그것의 재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이 법규범의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개인들이 법의 경험적 타당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법은 효율적인 규범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은 일상생활을 법에 의존하여 영위하거나 법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6>은 법의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지적 측면은 일상생활에서 법규범이 설정한 수단 사용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첫째 문항), 정서적 측면은 법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다(두번째와 세번째 문항). 그리고 행동적 측면은 법적 능력, 또는 법의존의 확률성을 표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네번째 문항).

인지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법의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도 좋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다(전문직업집단의 찬성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2.7%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정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법대로 하다가는 손해본다는 응답이 57.6%에 이르고 있어 법적 소외감의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 교육수준, 조사대상집단별로 차이가 나고 있

다. 즉,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이상층이, 교육정도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조사대상집단에서는 일반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다. “치안유지가 잘되고 있다”는 문항에서 긍정하는 응답도 전체의 44.2%에 불과하다.

〈 표 3.26 〉 법의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아무래도 좋다.		2.6 ( 17)	6.9 ( 44)	42.2 (271)	48.3 (310)	100.0 (642)
제주사회에서는 법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늘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16.1 (103)	41.5 (266)	39.6 (254)	2.8 ( 18)	100.0 (641)
제주사회에서는 치안유지가 잘되고 있다.		4.2 ( 27)	40.2 (257)	48.3 (309)	7.3 ( 47)	100.0 (640)
비록 친구나 친척이라도 하더라도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고발해야 한다.		19.9 (127)	40.4 (258)	34.3 (219)	5.4 ( 34)	100.0 (638)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행동적 측면에 있어서는 60.3%만이 친구나 친척이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고발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행동적 측면, 즉 법의존의 확률성이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않은 것은 법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응답도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법 위반시 친구나 친척을 고발하는데 동의를 표하고 있다.

결국 제주인의 법의식은 인지적, 원론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나 실제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는 법의식이 부정적이며 법적 소외감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의식 해석의 연장선상 위에서 <표 3.27>의 문항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66.5%가 요즘 같아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sup>9)</sup> 성

9)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친척을 제외한 남들을 어

별로는 남자응답자가, 연령별로는 30대가, 학력별로는 고졸응답자가,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거주자가, 그리고 조사대상집단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많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3.0%가 세상은 권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나같은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도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3.27 〉 불신의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요즘 같아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21.1 (135)	45.4 (290)	29.9 (191)	3.6 ( 23)	100.0 (639)
세상은 권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나 같은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다.		20.2 (130)	42.8 (275)	29.3 (188)	7.7 ( 49)	100.0 (642)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미래고 뭐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12.1 (77)	26.7 (171)	45.6 (292)	15.6 (100)	100.0 (640)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위의 두 문항에 비추어 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불신의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법규범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회의도 이런 맥락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그것의 내용이 변화의 양상이든, 법규범의 불공정성이든), 미래고 뭐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8.7%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결코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을 것은 아닌 것 같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층은 무려 55%나 된다).

“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 1.0%, ‘대체로 신뢰한다’ 14.8%, ‘그저 그렇다’ 37.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3.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0%로 나타나고 있다. 46.3%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중간 응답인 ‘그저 그렇다’를 염두에 둔다면 이 수치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44.7%가 신뢰감 결여, 이기주의, 신용부재, 약속불이행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4) 언론에 대한 인식

제주인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도, 선거 때 언론의 중립에 대한 인식, 지방신문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주 지역 언론이 제주도민을 결속시키는 역할에 대한 인식 등 5개 문항을 검토하였다.

〈표 3.28〉에서 보면,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거 때 제주지역 언론은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61.9%). 그리고 제주지역의 지방신문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61.1%), 제주지역의 언론은 제주도민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65.6%)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그렇다'는 반응이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제주지역 언론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3.28 〉 언론에 대한 인식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은 믿을 수 없다.		7.3 (47)	64.8 (416)	24.3 (156)	3.6 (23)	100.0 (642)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내용은 믿을 수 없다.		7.5 (48)	67.7 (435)	21.2 (136)	3.6 (23)	100.0 (642)
선거때 제주지역의 언론은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12.2 (78)	49.7 (317)	35.0 (223)	3.1 (20)	100.0 (638)
제주지역의 지방신문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8.6 (55)	52.5 (334)	35.6 (227)	3.3 (21)	100.0 (637)
제주지역의 언론은 제주도민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0.9 (69)	54.7 (348)	31.9 (203)	2.5 (16)	100.0 (636)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언론에 대한 이같은 불신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신문보도 내용은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불신이 커지고 있고 현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 거주자가 불신감의 정도가 가장 높다. 주관적 계층별로는 하층으로 갈수록 불신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텔레비전내용과 관련된 둘째 문항에서는 남제주군 거주자와 중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중립성에 대한 인식은 상층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 마지막 문항의 도민을 결속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주관적 계층별로는 하층이 부정적인 견해를 더 간직하고 있다.

### 5) 원로와 인물부재에 대한 의식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원로는 사회관계에서 중심축을 이루었다. 유교적 질서관이 전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로들은 폭넓은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사회의 질서를 다듬고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의식과 공동체의 구성원리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원로에 대한 기대나 요구, 그 역할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급속한 사회변동과 사회분화, 세대격차의 심화, 유교적 도덕원리의 약화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표가 될만한, 그 기능적 역할을 다하는 원로의 존재가 사회전체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래의 <표 3.29>는 이와 연관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 표 3.29 > 제주사회에서의 원로와 인물 키우기

(단위: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제주지역에는 진정으로 사표가 되는 원로가 없다.	23.5 (157)	54.9 (366)	19.1 (127)	2.5 (17)	100.0 (667)
제주사람들은 인물을 키우는 데 인색하다.	32.7 (222)	47.2 (320)	17.1 (116)	3.0 (20)	100.0 (678)

표에서 보면 응답자들의 78.4%가 제주지역에는 진정으로 사표가 될만한 원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조사대상집단별로는 도내거주 전문직업집단의 비율이 93.1%로 가장 높다. 왜 응답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말한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경향 때문에 그러한가. 아니면 실재가 그러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

문에 해석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인물 키우기와 관련된 문항의 자료로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응답자들 대부분(약 80%)이 제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인물을 키우는 데 관대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조사대상집단과 소득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직업집단(도내, 도외거주)과 2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이 다른 집단들보다 '그렇다'는 반응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인물을 키우는 데 사회적으로 인색하기 때문에 사표가 되는 원로가 실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사표가 될만한 원로들이 실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 키우는데 인색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원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어느 해석이 옳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두 요인간에는 분명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 6) 세대격차와 남녀 평등관

사회변동의 속도가 완만한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세대간 격차의 문제가 별다른 사회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6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면서부터 폭과 속도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급속한 사회변동을 수반하였다. 이에 조용하여 세대간 격차도 커졌으며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다가서게 되었다. 세대간 격차는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논리와 시각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행동의 가치기준이 세대별로 다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세대별 현실관, 행동관의 차이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로 말미암아 전개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3.30〉에서 보면 응답자의 약 86%가 여러 면에서 세대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세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거시적 원인들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현상적으로만 보면, 세대격차는 신세대의 앞선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는 의견(66.0%)이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57.9%)보다 훨씬 더 많다. 신세대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세대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항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교차시켜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아 세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전문직업집단(도내)은 가장 적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신세대가 너무 앞선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40대 연령층이, 중졸이하층이, 일반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 표 3.30 〉 세대간 격차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여러 면에서 세대간 격차가 심각하다.		25.6 (163)	60.3 (385)	12.7 ( 81)	1.4 ( 9)	100.0 (638)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아 세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11.5 ( 74)	46.4 (298)	36.8 (236)	5.3 (34)	100.0 (642)
신세대가 너무 앞선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19.9 (128)	46.1 (296)	29.6 (190)	4.4 (28)	100.0 (642)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 표 3.31 〉 남녀 평등관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남자와 여자가 학력이나 능력이 같다면 직장에서 똑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60.1 (386)	30.5 (196)	8.1 ( 52)	1.3 ( 8)	100.0 (642)
여자도 남자처럼 술과 담배를 해도 괜찮다.		12.9 ( 83)	23.4 (150)	32.1 (206)	31.6 (203)	100.0 (642)
남자와 여자는 똑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31.7 (203)	38.5 (247)	24.2 (155)	5.6 ( 36)	100.0 (641)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남녀 평등관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똑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70.2%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표 3.31〉 참조). 또한 응답자의 90.6%가 동일 학력과 동일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남녀 차별없이 똑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자도 남자들처럼 술과 담배를 해도 괜찮다는 데에 대해서는 63.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문항별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자료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술과 담배 같은 기호

품이 여자에게 더욱 해를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 환경이 유교적이기 때문인지는 판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통념적인 추론을 해본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남녀 평등을 측정하는 세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많은 층보다는 젊은 층이, 그리고 다른 조사대상자보다는 대학생집단이 더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과 전문직업집단(도내)에서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7)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

제주사회에서 가정의례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0)</sup>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각종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의 각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개선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개선 성과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괄목할 만큼 인지되고 있지만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표 3.32 >의 '문항들은 제주사회의 가정의례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평가되어 온 것들이다. 문항별로 '정말 문제다'라고 대답한 문항들을 보면 '접부조, 이중부조', '과다한 조화진열' 등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과다한 음식물 제공', '답례품 주고 받기', '소기 종일봉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의 내용들은 제주사회의 의례문화에서 일상화된 것들이었으며, 어떤 것들은 최근에 상당한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문제다'라는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들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들이다. 그러나 배경변인별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부록 참조), 모든 문항의 내용들이 제주사회에서 큰 문제라는 데는 응답자들 대부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10) "제주도의 가정의례에서는 허례허식이 많은 것 같다"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정말 그렇다' 49.3%, '대체로 그렇다' 43.5%, '대체로 그렇지 않다' 6.6%, '전혀 그렇지 않다' 0.6%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려 92.8%의 응답자가 가정의례에서의 허례허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례의 문제점과 관련된 개선의 관건은 허례허식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김진영, 「제주도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방안 연구」, 제주도, 1994; 「가정의례 의식과 개선운동」, 제주대학교 지역사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11집, 1995를 참조할 수 있다.

〈 표 3.32 〉 가정의례에 대한 인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문제다	약간 문제다	별로 문제가 되지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계
답례품 주고 받기		55.6 (381)	32.8 (225)	10.7 (73)	0.9 ( 6)	100.0 (685)
소기 종일 봉제		38.4 (261)	45.6 (310)	13.2 (90)	2.8 (19)	100.0 (680)
접부조, 이중부조		79.5 (544)	16.8 (115)	3.5 (24)	0.2 ( 1)	100.0 (684)
과다한 음식물 제공		57.8 (396)	36.1 (247)	5.7 (39)	0.4 ( 3)	100.0 (685)
과다한 조화진열		65.3 (447)	29.4 (201)	5.0 (34)	0.3 ( 2)	100.0 (684)

주) 문항들은 응답자 전체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8) 영역별 주민생활과 사회발전에 방해가 되는 폐단들에 대한 인식

〈표 3.33〉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제주사회가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폐단들이 생활영역별로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큰 문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큰 영역은 우범지역(뒷골목, 불량배, 깡패 등)(68.3%)과 유흥가지역(50.5%) 등이다. 여기에 '중 문제다'라는 응답까지 합쳐서 보면 역시 우범지역(95.1%)과 유흥가 지역(92.5%) 순으로 가장 심각하고, 다음으로 사회일반의 불신평조(89.0%), 공공질서영역(85.6%), 공직영역(83.8%), 교육영역(83.4%), 언론영역(77.4%) 등의 순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관광지역(51.3%)과 상가지역(47.9%)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영역에서 '문제다'라는 응답란에 백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영역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임과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것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역별 응답내용을 평균점수화하여 보아도 중간순위에서 약간 차이가 날 뿐 대체적 경향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다.

〈 표 3.33 〉 영역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회발전에 방해가 되는 정도

(단위: %)

문항	응답범주	큰 문제다	좀 문제가 된다	별로 문제가 안된다	전혀 문제가 안된다	계(N)	평균
유홍가 지역		50.5	42.0	7.0	0.5	100.0(633)	3.43
상가지역(시장, 가게, 백화점)		8.3	39.6	46.5	5.6	100.0(627)	2.51
관광지역		11.1	40.2	40.6	8.1	100.0(630)	2.54
우범지역(뒷골목, 불량배, 강패 등)		68.3	26.8	4.7	0.2	100.0(638)	3.63
공직분야(권력남용, 청탁, 관공서 불친절)		33.4	50.4	13.9	2.3	100.0(631)	3.15
공공질서분야(도시교통, 법지키기, 자연보호)		33.7	51.9	11.9	2.5	100.0(632)	3.17
불신풍조(사회불신, 정부불신, 신뢰부족)		35.8	53.2	9.7	1.3	100.0(632)	3.23
교육분야(과외, 금품수수, 교육풍토 타락)		36.9	46.5	14.7	1.9	100.0(631)	3.18
언론분야(언론의 횡포, 편향 보도)		26.2	51.2	20.7	1.9	100.0(619)	3.02

주1)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2) '모르겠다'라는 응답란에 대답한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3) 평균은 '큰 문제다'에 4점, '좀 문제다'에 3점, '별로 문제가 안된다' 2점, '전혀 문제가 안된다'에 1점을 주어 계산한 것이다.

### 9) 걱정거리

〈표 3.34〉는 제주사람들의 영역별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 및 가정 생활 영역에서는 돈과 관련된 '재정과 경제'에 대한 걱정이 22.8%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건강, 자녀교육, 직업, 가정생활 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웃 및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공중질서, 도덕, 윤리'(34.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아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생활환경, 공해'도 이 영역에서 중요한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정치생활영역에서는 '정치(불)안정'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38.3%), 경제정책, 도농/지역간 격차도 걱정거리의 순서에서 앞 위치를 점하고 있다.

〈 표 3.34 〉 영역별 걱정거리(중요 순서별)

개인 및 가정생활의 걱정		이웃 및 사회생활의 걱정		국가 및 정치생활의 걱정	
항목	%	항목	%	항목	%
가정생활 전반	10.4	사회 및 공공부조	6.9	경제정책	25.9
건강	18.4	인간관계의 개선	27.1	정치안정	38.3
자녀교육	17.5	공중질서, 도덕, 윤리	34.8	도농/ 지역간 격차	15.1
직업	13.5	지역사회개발	8.1	안보와 전쟁가능성	8.7
재정, 경제	22.8	사회적 참여와 평등	8.4	통일	8.4
주택	3.2	생활환경, 공해	11.0	기타 국가/정치생활	2.6
결혼생활	1.9	기타 이웃/ 사회생활	0.6	걱정거리가 없다	1.0
인격도야	1.9	걱정거리 없다	3.1		
여가와 취미	1.0				
노후보장 및 안정	6.4				
종교와 신앙	0.3				
효도와 조상봉양	1.6				
기타 가정생활	0.3				
걱정거리 없다	0.8				
계	100.0	계	100.0	계	100.0
(N)	(624)	(N)	(621)	(N)	(622)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10) 타파되어야 할 폐습과 앞으로 요구되는 사고방식

한국사회에서 타파되어야 할 폐습과 문제되는 사고방식은 많다. 제주사회에서도 이러한 폐습과 사고방식은 존재한다. <표 3.35>는 제주 사회에서 타파되어야 할 폐습들을 첫째로 중요한 것과 둘째로 중요한 것 등 중요도 별로 응답분포를 나타내주고 있다. 첫째로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백분율을 보면, '허례허식'(18.0%), '교통질서 위반'(16.2%), '불친절'(16.2%), '사치풍조'(13.4%) 등의 순으로 이 항목들은 모두 전체 응답자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소비생활, 기초질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으로 '노름'(8.7%), '미신'(6.9%), '길거리에서 침뱉기'(4.6%) 등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허례허식'(30.6%)과 '사치풍조'(14.9%) 등이다. 전체 응답자(첫째에 응답한 679명)를 기초로 중요순서 첫째와 둘째를 종합적으로 묶어 평균점수를 산출해보면 '허례허식', '사치풍조', '불친절', '교통질서 안 지키는 것' 등의 순으로 타파되어야 할 폐습들로 지적되고 있다. 허

례허식이 이렇게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가정의례 분야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폐습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과거 제주정신의 하나로 공유되던, 근검, 절약을 상징하는 '조낭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 표 3.35 〉 제주사회에서 타파되어야 할 폐습들(중요 순서별)

(단위: %, 점수)

문항	중요순서	첫째	둘째	평균
길거리에서 침뱉기		4.6( 31)	0.9( 6)	0.10
줄 안서는 것		3.7( 25)	1.8( 12)	0.09
교통질서 안 지키는 것		16.2(110)	6.5( 44)	0.39
불친절		16.2(110)	9.1( 61)	0.41
미신		6.9( 47)	2.8( 19)	0.16
아침		4.1( 28)	2.1( 14)	0.10
노약자에게 양보 안하는 것		2.7( 18)	2.5( 17)	0.08
새치기		0.3( 2)	0.7( 5)	0.01
노름		8.7( 59)	8.9( 60)	0.26
사치풍조		13.4( 91)	14.9(100)	0.42
허례허식		18.0(122)	30.6(206)	0.66
휴지, 담배꽂초 아무데나 버리기		1.8( 12)	6.4( 43)	0.09
신구간		2.0( 14)	8.2( 55)	0.10
무고		1.3( 9)	4.2( 28)	0.05
기타		0.1( 1)	0.4( 3)	0.01
계(N)		100.0(679)	100.0(673)	

주) 평균은 중요순서 첫째에는 2점, 둘째에는 1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0~2점이 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의 순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 나오는 〈표 3.36〉와 〈표 3.37〉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첫째 순위그룹에서는 '이기주의'(35.3%), '파벌, 학연, 지역주의'(19.1%)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둘째로 중요한 순위 그룹에서는 '적당주의'(23.7%), '파벌, 학연, 지역주의'(19.1%), '불

신'(14.7%), '폐쇄주의, 배타주의'(13.9%), '이기주의'(12.1%)의 순으로 거론되고 있다 (<표 3.36> 참조). 이들은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사고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기주의', '파벌, 학연, 지역주의'는 평균점수상으로 가장 높게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평균점수와 관련하여 주의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대목은 두가지이다. 우선, 평균점수가 높기 위해서는 첫째 순위로 위치를 매긴 응답자의 수가 많아야 하기도 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그 항목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음은 '폐쇄주의, 배타주의'에 대한 해석이다. 전체 응답자중에서 이들을 선택한 응답자는 불과 146명인 10.8.%(146/1,354)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의 의식을 개념화할 때 폐쇄주의나 배타주의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제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정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세이전의 성장지역 변인과 교차시켜 보아도 제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제주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폐쇄주의와 배타주의'를 더 많이 지적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때 '파벌, 학연, 지역주의', '이기주의', '불신' 등의 개념에는 폐쇄주의와 배타주의의 개념적 속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의 개념들이 폐쇄주의의 배타주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할지라도, 이들 개념들을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표 3.36 〉 현재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

(단위:%, 점수)

문항 \ 중요순서	첫째	둘째	평균
남존여비	5.3( 36)	3.8( 25)	0.14
관료의식	12.1( 82)	5.3( 35)	0.29
배금사상	5.8( 39)	5.6( 37)	0.17
사대주의	0.7( 5)	1.8( 12)	0.03
이기주의	35.3(239)	12.1( 80)	0.82
파벌, 학연, 지역주의	19.1(129)	19.1(126)	0.57
불신의식	6.5( 44)	14.7( 97)	0.27
폐쇄주의, 배타주의	8.0( 54)	13.9( 92)	0.29
적당주의	7.2( 49)	23.7(157)	0.37
계(N)	100.0(677)	100.0(661)	

〈 표 3.37 〉 앞으로 요구되는 사고방식

(단위: %, 점수)

문항	중요순서		
	첫째	둘째	평균
진취적 사고	32.5(219)	10.0( 63)	0.74
개방적 사고	19.7(133)	14.0( 88)	0.52
관용적 태도	16.0(108)	16.6(104)	0.47
합리주의	11.6( 78)	19.7(124)	0.42
통합적 사고	5.8( 39)	8.8( 55)	0.20
이타주의	2.1( 14)	4.0( 25)	0.08
친절한 태도	12.0( 81)	26.9(169)	0.49
인본주의	0.3( 2)	-	0.01
계(N)	100.0(674)	100.0(628)	

앞으로 제주인에게 요구되는 의식은 이들을 최대한으로 극복하면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환경의 객관적 조건(사회구조, 기술, 사회내외적인 조건 등)의 변화에 조용하는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를 사회학자들은 흔히 문화지체(cultural lag)라고 개념화한다. 문화지체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전체적으로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될 수 없다. 문화지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폐습과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내용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그 내용을 구성해볼 필요가 있는데, 〈표 3.37〉는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다. 앞으로 요구되는 사고방식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들로는 진취적 사고(32.5%), 개방적 사고(19.7%), 관용적 태도(15.0%), 친절한 태도(12.0%), 합리주의(11.6%)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지적된 순위그룹에서는 친절한 태도(26.9%), 합리주의(19.7%), 관용적 태도(16.6%), 개방적 사고(14.0%), 진취적 사고(10.0%)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첫째와 둘째를 묶어 하나의 평균 점수로 나타내보면 진취적 사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개방적 사고, 친절한 태도, 관용적 태도, 합리주의 순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폐쇄주의적 사고, 이기주의, 지역주의, 배타주의 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

#### 제4절 문화 및 생활의식: 문화·생활 영역에 관련된 의식

제주문화는 제주인들이 수천년 동안 고립된 이 섬에 살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듬고 형성해온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 문화는 육지문화와는 다른 특성, 즉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제주인의 문화의식을 검토하기 위해 제주문화 일반에 대한 인식과 긍지, 친구간 풍습, 음식과 언어, 제주민의 특성,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1) 제주문화 일반에 대한 인식과 긍지

〈표 3.38〉는 응답자들이 제주도 문화에 대해 갖는 인식과 긍지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가 알려주고 있듯이 제주도 문화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는 응답이 83.2%, 제주도 사람들이 해놓은 일에 대한 자부심에 있어서는 74.7%, 제주사회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81.9%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잘 아는 편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52.2%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대다수 응답자들은 제주도에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문화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에

〈 표 3.38 〉 제주문화 일반에 대한 인식과 긍지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제주도 문화에 대하여 긍지를 느낀다.	26.2 (180)	57.0 (391)	14.5 (99)	2.3 (16)	100.0 (686)
나는 제주도 사람들이 해 놓은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23.5 (161)	51.2 (350)	23.0 (157)	2.3 (16)	100.0 (684)
제주사회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	32.8 (211)	49.1 (314)	16.7 (107)	1.4 (9)	100.0 (639)
나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잘 아는 편이다.	11.8 ( 81)	40.4 (277)	43.1 (295)	4.7 (32)	100.0 (685)

주) \*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대해서는 응답자의 반 정도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막연히 제주도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문화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며 지식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의 문항들에 나타난 응답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시켜 보면, 문항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교육수준변인에서는 앞의 3개 문항에서 모두 중졸이하층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거주지별로 보면, 제주도 문화에 대한 긍지는 제주시 거주자가 가장 높으며, 제주도 사람들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북제주군 거주자가 자부심이 가장 높다. 제주사회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서귀포시 거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나타내는 마지막 문항에 대해서는 배경변인별 전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이상이, 현거주지별로는 도외지역 거주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갈수록 긍정적이다. 조사대상 집단별로는 전문직업 집단(도외), 전문직업집단(도내), 일반성인, 대학생 순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대학생은 1/3 정도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 관광개발과 전통문화의 관계

각국의 개발역사를 회고해보면, 관광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통문화가 파괴되기도 하고 더욱 발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은 전통문화의 육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표 3.39>는 이와 연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표 3.39 > 관광개발과 전통문화의 관계에 대한 의식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전통문화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29.6	47.3	19.4	100.0
	(203)	(324)	(133)	(25)	(685)
이제 관광개발은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59.7	35.5	3.8	100.0
	(406)	(241)	(26)	(7)	(680)

표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전통문화는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76.9%), 이제 관광개발은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95.2%)는 응답자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의 문항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20대 이하, 40대, 30대, 50대 이상 순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연령에 관계없이 매우 높다. 이것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광개발로 미풍양속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과도(제3장 2절 참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관광개발은 미풍양속등 전통문화를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신구간 풍습에 대한 인식

제주도에서 신구간 풍습은 독특한 것으로서,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치는 일은 통상적으로 이 기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 풍습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신구간 풍습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 표 3.40 〉 신구간 풍습에 대한 인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신구간 풍습이 있어 생활이 불편하다.	24.8 (159)	35.9 (231)	28.4 (182)	10.9 ( 70)	100.0 (641)
나는 신구간을 지키며 이사가거나 집을 고칠 때는 날을 보고 한다.	26.4 (169)	32.8 (212)	23.1 (148)	17.7 (113)	100.0 (640)

주)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표 3.40〉를 보면, 신구간 풍습이 있어 생활이 불편하게 생각하지만(60.7%), 신구간을 지키며 이사가거나 집을 고칠 때는 날을 골라 하는 사람들이 다수(59.2%)인 것을 알 수 있다. 신구간 풍습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다는 사람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학력별로는 고졸층에서, 계층별로는 상층이 그리고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전문직업집단에서 많

이 발견되고 있다. 신구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갖는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신구간이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구간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신구간문화가 사회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제주도의 음식과 언어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이 전통음식(갈치국, 생선국 등)에 대한 선호와 일상 생활에서 제주도 방언을 많이 쓰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 3.41>를 보자.

< 표 3.41 > 제주도 음식과 언어

(단위: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나는 전통음식 (갈치국, 생선국 등)을 좋아한다. *	41.7 (268)	34.8 (224)	16.6 (107)	6.9 (44)	100.0 (643)
나는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	33.0 (227)	40.3 (277)	21.6 (148)	5.1 (35)	100.0 (687)

주) \*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표의 내용은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전통음식을 좋아하며 일상 생활에서 제주도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50대 이상에서는 '정말 그렇다'는 반응만도 무려 59.1%에 이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가 가장 높으며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전문직업집단(도내)이 가장 높고 대학생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방언사용 정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과 고졸층이,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미만층이 그리고 현거주지별로는 군지역 거주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간층과 하층이, 조사대상 집단별로는 일반집단이 방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5) 제주정신에 대한 평가

조낭정신, 책임감, 삼무정신, 독립심 등은 흔히 제주정신의 긍정적 측면으로 지적되어온 것들인데 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평가하는지를 검토해보자. <표 3.42>는 응답자들이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들여다보면, 응답자의 63.1%가 조낭(절약)정신은 제주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데 대해서는 76.7%가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들은 제주도 사람들이 독립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삼무정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앞의 것들과 사뭇 다르다. 삼무정신은 이제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이상을 강조해왔고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해온 삼무정신이 제주인의 정신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제주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삼무정신이 친화성과 적합성을 상실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표 3.42 > 제주정신의 평가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조낭(절약)정신은 제주사회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7.1 ( 49)	29.8 (204)	39.0 (267)	24.1 (165)	100.0 (685)
제주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책임감이 강하다.		31.8 (203)	44.9 (287)	21.7 (139)	1.6 ( 10)	100.0 (639)
삼무정신은 이제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31.7 (216)	49.9 (340)	16.5 (112)	1.9 ( 13)	100.0 (681)
제주도 사람들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편이 강하다.*		47.1 (323)	43.4 (297)	8.0 ( 55)	1.5 ( 10)	100.0 (685)

주) \*를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배경변인들과 관련시켜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낭정신의 효력상실과 관련된 첫번째 문항에서는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부정적이며, 소득수

준별로는 2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책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두번째 문항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졸이하의 약 9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범주를 선택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이상의 응답자가,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일반집단이 가장 긍정적이다. 한편 "삼무정신은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문항에서는 20대이하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동의하고 있다. 전문대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14.1%만이 삼무정신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긍심의 정도를 보면, < 표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제주인들의 능력이 육지사람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육지 사람과 일을 할 때도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능력과 연관지어 볼 때 자긍심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자긍심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나이든 연령층보다는 20대에서,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거주지별로는 제주시 거주자가, 조사대상집단별로는 대학생집단이 가장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

당당한 자세와 관련된 자긍심도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50대이상층,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전문직업집단(도외)이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제주출신으로 육지지역에서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육지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해서 제주지역에서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80% 정도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수치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 표 3.43 〉 제주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7.7 (256)	46.0 (313)	12.6 (86)	3.7 (25)	100.0 (680)
제주도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육지 사람을 만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다.	36.4 (248)	49.7 (339)	13.0 (89)	0.9 (6)	100.0 (682)

다른 정신 일반과 마찬가지로 제주정신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배타심은 제주정신의 부정적인 측면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표

3.44)는 이러한 배타주의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들의 대답에 기초하여 얻은 것이다.

〈 표 3.44 〉 배타심에 대한 인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나는 고향이 제주도 사람이 아닌 외지인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낀다.	10.8 ( 69)	34.4 (220)	40.6 (259)	14.2 ( 91)	100.0 (639)
나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 나면 경계하는 편이다.	8.0 ( 51)	25.4 (163)	47.7 (305)	18.9 (121)	100.0 (640)
제주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들, 특히 육지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15.9 (108)	48.9 (333)	28.6 (195)	6.6 ( 45)	100.0 (681)

주) \*를 제외한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표는 자평적 자아(自評的 自我)에 관계된 2개의 문항(첫째와 둘째 문항)과 자평적 타아(自評的 他我)와 관련된 1개의 문항(셋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평적 자아, 즉 스스로 자기자신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배타심의 정도가 결코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낮은 수준도 결코 아니다. 외지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1/3수준에 불과하지만 외지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은 45.2%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평적 타아와 관계된 문항은 배타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제주사람들은 육지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무려 64.8%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심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단에 따라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외지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는 문항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지역보다는 군지역, 거주자가 다른 집단들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일반집단과 대학생집단이 전문직업집단(도내)보다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같은 거리감은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에서, 조사대상 집단별로는 일반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육지사람에 대해 제주사람들이 갖는 배타심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30대이하층이 더 배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갈수록 배타적이라는 데 더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흥미로운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즉, 자신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경계심이나 거리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인 일반의 배타심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받은 상층일수록 제주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의 시각이긴 하지만 제주인의 정신 중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는 또 다른 것은 열등의식, 편가르기 등이 있다. <표 3.45>에서 보면, 많은 응답자들은 제주도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제주도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편이다"라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63.6%는 제주도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열등의식을 제주정신의 부정적 측면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 표 3.45 > 부정적인 의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6.2 ( 41)	30.2 (199)	48.7 (321)	14.9 ( 98)	100.0 (659)
제주도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잘 하는 편이다.*	18.8 (127)	48.6 (329)	28.2 (191)	4.4 ( 30)	100.0 (677)

주) \*를 제외한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주관적 상층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간층의 약 2/3는 육지사람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편가르기를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도의 전문직업집단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배경변인 중에서 상층과 전문직업집단 대부분은 제주도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제주도에 대한 애착감

특정 대상에 대해 동일시하거나, 애착감을 가질 때, 그 대상과 만족스러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제주에 대한 애착감의 수준은 제주도에서의 현재적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46 〉 제주도에 대한 애착감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보면 제주도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51.7 (351)	42.6 (289)	4.8 ( 33)	0.9 ( 6)	100.0 (679)
나는 현재 나의 삶의 여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22.4 (144)	49.3 (317)	23.2 (149)	5.1 (33)	100.0 (643)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질은 육지 사람들에 비해 높다.		21.6 (139)	47.7 (306)	26.0 (167)	4.7 (30)	100.0 (642)

주) \*를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표 3.46〉에서 보면,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제주도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대학생과 도내거주 전문직업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2/3 정도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육지에 비해 삶의 질도 높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의 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교통도 편리해졌으며,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등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을 갖게 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층이, 현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7) 지역공동체 의식

제주도는 예로부터 지역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이 공동체의식은 제주인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해온 삶의 지혜이며 미풍양속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놓음,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호칭, 협동심 등 3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 표 3.47 〉 지역공동체 의식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나는 제주도 농촌에서 일할 때 수눌어서 하는 것이 좋다.*		36.6 (231)	49.0 (310)	12.7 ( 80)	1.7 (11)	100.0 (632)
나는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조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40.3 (274)	43.0 (293)	13.2 ( 90)	3.5 (24)	100.0 (681)
제주도 사람들은 협동심이 많다.		28.3 (194)	48.6 (333)	20.5 (140)	2.6 (18)	100.0 (685)

주) \*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표 3.47〉에서 보면, 제주도 농촌의 수눌음에 대한 호감(85.6%)과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조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호감(83.3%)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은 협동심이 많다고 인식(76.9%)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농촌에서는 수눌어서 일하는 풍습이 남아 있고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미풍양속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염원과도 관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관련변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눌음을 측정하는 첫번째 문항은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웃에 대한 호칭문제를 나타내는 두번째 문항에서는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일반집단과 전문직업집단(도위)이 다른 집단보다 비교적 긍정적이고 대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협동심을 나타내는 마지막 문항에서도 관련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이하층과 50대이상층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가, 조사대상집단별로는 일반집단과 대학생이 비교적 긍정적이다.

#### 8) 생활태도와 가족의식

제주인들이 갖는 정신은 제주인들의 생활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표 3.48〉는 생활태도의 이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 표 3.48 〉 생활태도

(단위 :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제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다.		55.5 (381)	39.2 (269)	4.7 ( 32)	0.6 ( 4)	100.0 (686)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은 검소하다.		38.0 (261)	44.5 (305)	15.2 (104)	2.3 (16)	100.0 (686)

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며, 검소하다고 응답자들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한 생활력에 대한 인식은 성, 교육수준, 조사대상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검소한 생활에 대한 인식은 50대이상의 연령층과 낮은 학력층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가족집단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은 장남분가, 균분상속, 독립심 등이다. 〈표 3.49〉를 통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해보자.

〈 표 3.49 〉 가족의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장남이라도 결혼하면 분가시키는 제주도의 풍습이 좋다.*		39.2 (269)	44.6 (306)	13.3 ( 91)	2.9 ( 20)	100.0 (686)
자식이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0.2 ( 65)	24.7 (158)	30.4 (194)	34.7 (222)	100.0 (639)
나는 제주도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노부모가 자식과 같이 살지 않고 독립해서 생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24.1 (154)	52.6 (339)	15.6 (100)	7.7 ( 50)	100.0 (640)
나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46.6 (299)	45.1 (290)	6.1 ( 40)	2.2 ( 14)	100.0 (641)
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겠다.		44.4 (284)	40.0 (256)	9.4 ( 60)	6.2 ( 40)	100.0 (640)

주) \*를 제외한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남분가제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심, 재산 균등분배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도 가족집단이 갖는 특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그러한 특성을 선호하고 있음은 물론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령 장남분가와 관련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이 더 긍정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 9) 제주인의 자아정체성

정체성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은 나는 무엇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제주도 사람이다, 나는 남성이다" 라는 실감(實感)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주인의 자아정체성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긍지', '육지에 가서도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정도', '자녀들이 육지 대도시에 살기를 바라는 정도', '직장이 주어지면 육지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정도' 등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 표 3.50 〉 제주인의 자아정체성

(단위: %)

문항	응답범주					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나는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37.5 (257)	47.2 (323)	13.4 ( 92)	1.9 ( 13)		100.0 (685)
나는 육지에 가서도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44.6 (304)	39.3 (268)	13.8 ( 94)	2.3 ( 16)		100.0 (682)
나의 자녀들도 육지 대도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10.8 ( 74)	26.4 (180)	46.9 (321)	15.9 (109)		100.0 (684)
직장만 주어지면 육지에 가서 살고 싶다.*	10.2 ( 65)	22.7 (145)	38.3 (245)	28.8 (184)		100.0 (639)

주) \*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표 3.50〉에서 확인되듯이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84.9%), 육지에 가서도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83.9%). 그리고 응답자의 62% 정도는 자녀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2/3 정도는 본인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제주인들의 자아정체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자아정체성의 정도를 다른 변인들과 관련시켜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다소 발견된다. 첫째 문항은 전 연령층이 83.3% 이상으로 큰 차이 없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층에서,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간층에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정말 그렇다'는 반응이 높은 집단은 50대이상, 중졸이하, 군지역 거주자, 주관적 하위계층 등이다. 따라서 중졸이하층, 50대이상 연령층, 군지역 거주자층이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가장 큰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의 둘째 문항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긍정적 반응이 다소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정말 그렇다'는 반응은 50대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거주지별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거주자가 더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자녀들이 육지 대도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외 거주자의 82.9%가 자녀들이 육지 대도시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계층별로는 상층이(41.6%), 조사대상집단별로는 도외 전문직업집단(80.5%)이 더 자녀가 육지 대도시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 끝으로 마지막 문항인 "직장만 주어지면 육지에 가서 살고 싶다"는 데 대해서는 대학생집단이 가장 긍정적이다.

## 제4장 제주사회와 바람직한 제주정신

올해로 제주사회는 도제(道制) 실시(1946. 8. 1일) 50주년을 맞고 있다. 이 반세기 동안 제주사회는 한편으로는 험난한 고난과 역경을 체험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약과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이 기간은 편의상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의 시기는 50년대 말까지의 기간으로 4·3사건, 한국전쟁, 사라호태풍, 흉년 등 시련과 비극을 경험해야 했던 시간적 공간이었다. 둘째 시기는 6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80년대까지 이어지는 때인데,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1973~1981년),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1973~1982년),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1985~1991년) 등 주로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세번째는 금세기 마지막 10년이 시작되는 90년대 이후의 시기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1991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1994~2001년) 등을 통해 개발의 방향과 방법을 새로이 설정하는 때이다. 또한 이 시기는 우루과이협상 타결과 세계무역체제의 성립으로 제주의 주력산업인 감귤산업에 대한 위기인식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한편, 이 기간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정착을 계기로 지방의 독자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국가 원수의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됨으로써 제주지역이 이른바 '평화의 섬'으로 인식되고 국제회의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제주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응답자의 반응을 통해 가늠해보고 향후 제주사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또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과 이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제1절 제주사회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평가

#### 1) 생활형편의 평가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인간의 생활을 물량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주관적 측면에서까지 측정하여 나타낸 개념이다. 그런 만큼 삶의 질은 인간생활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활형편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아래의 표는 시기별로 생활형편을 응답자들이 평가한 것을 보여준다. 생활형편이라는 개념은 정신적인 의미까지 함축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 물량적인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생활형편은 삶의 질과 곧바로 등치시킬 수는 없고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라는 점이 기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표 4.1 〉 시대별 생활형편의 평가와 전망

(단위: %)

문항	응답범주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	그저 그렇다	별로 좋지 않다	전혀 좋지 않다	계
60년대 이전	3.6 (24)	4.3 (29)	8.8 (59)	29.3 (197)	54.0 (363)	100.0 (672)
1970년대	3.5 (24)	8.3 (56)	25.3 (172)	48.6 (330)	14.3 (97)	100.0 (679)
1980년대	3.1 (21)	32.3 (219)	54.7 (372)	9.3 (63)	0.6 (4)	100.0 (679)
1990년대	5.3 (36)	59.4 (406)	30.6 (209)	4.1 (28)	0.6 (4)	100.0 (683)
2000년대	24.9 (166)	51.0 (341)	20.5 (137)	3.1 (21)	0.5 (3)	100.0 (668)

주) “제주도민들의 전반적인 생활형편은 시기별로 어떤(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표 4.1〉의 전체적 내용은 응답자들이 과거보다는 현재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좋다’와 ‘대체로 좋다’라는 응답범주를 묶어보면 60년대 이전과 70년대에 대해서는 불과 7.9%와 11.8%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의 제주사회의 생활형편이 매우 낮았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사정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80년대나 90년대 모두 ‘매우 좋다’는 반응은 이전 시기와 다를 것이 없지만 ‘대체로 좋다’의 반응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는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무려 24.9%에 이르고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까지 합쳐서 보면 그 수치는 75.9%에 이르고 있다. 응답자의 2/3이상이 목전에 와 있는 21세기에는 생활형편이 과거나 지금보다는 좋아지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기별로 이러한 평가는 응답자의 배경환경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부록의 표 참조).

미래의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모두에서 그러한 것일까. 생활형편이 물질적 의미를 더 많이 담아내는 개념이라면, 이것의 향상이 정신적 만족의 향상까지도 함의하는 것일까. 〈표 4.2〉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

을 제시해주고 있다.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는 예상되지만 정신적 어려움은 오히려 더 클 것이라는 반응이 높다. 이 표에 대한 유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있어 정신적인 풍요는 기약하기 힘들며 오히려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4.2 〉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평가

(단위: %)

응답 범주	비율(N)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19.9(135)
물질적 풍요는 예상되나 정신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65.2(442)
물질적으로는 어려워질 것이나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4.4( 30)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빈곤해질 것이다.	10.5( 71)
계	100.0(678)

주) “제주도의 앞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 2) 지난 10년간과 앞으로 10년 후의 평가

앞 소절에 다루어졌던 내용이 생활형편에 대해 시기별로 응답자들이 총체적으로 갖는 인식과 평가였다면, 본 소절에서는 지난 10년간과 앞으로 10년 후에 있어서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표 4.3〉와 〈표 4.4〉에서 보는 것처럼 ‘교통사정’, ‘교통안전’에서부터 ‘교육의 질’, ‘대민봉사행정’, ‘물가’, ‘세금’, ‘이웃간의 인심’, ‘가족관계’, ‘친척관계’, ‘문화생활’, ‘여가와 오락’, ‘의료시설’, ‘범죄’, ‘농촌사정’, ‘주택’, ‘환경’, ‘공공시설’, ‘사람의 값어치’, ‘정신건강’, ‘사회정의’, ‘관광부조리’ 그리고 ‘지역내 취업사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양적, 질적 또는 물질적, 정신적 측면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22개 망라되었다. 항목들을 ‘나빠진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아진 편이다’ 등의 응답범주별로 측정된 결과,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가령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나빠진 편이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은 ‘범죄’, ‘물가’, ‘세금’, ‘관광부조리’, ‘이웃간의 인심’ 등 5개 항목에 이르고 있는가 하면, ‘좋아진 편이다’라고 응답한 항목들은 ‘문화생활’, ‘여가와 오락’, ‘의료시설’, ‘교통사정’ 등이다.

표에서처럼 지난 10년 동안 항목별로 좋아진 정도와 나빠진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알아

보기 위해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응답범주들에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내보면 좋아진 항목들은 +의 방향의 수치로 나타나는 반면에 나빠진 항목들은 -방향의 수치로 표현된다. 즉, 개별 항목들의 평균점수를 기초로 <좋아진 항목 그룹>은 0점

〈 표 4.3 〉 지난 10년간의 평가

(단위: %, 점수)

항 목	나빠진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아진 편이다	계(N)	평균
교통사정	30.4	19.5	50.1	100.0(686)	0.246
교통안전	45.1	43.8	11.1	100.0(685)	-0.605
교육의 질	8.3	54.5	37.2	100.0(685)	0.635
대민봉사행정	6.6	63.2	30.2	100.0(682)	0.641
물가	74.2	23.0	2.8	100.0(683)	-0.928
세금	62.9	34.6	2.5	100.0(679)	-0.923
이웃간의 인심	53.1	41.9	5.0	100.0(685)	-0.829
가족관계	17.7	64.9	17.4	100.0(685)	-0.008
친척관계	21.0	64.7	14.3	100.0(686)	-0.190
문화생활	5.0	36.8	58.2	100.0(685)	0.843
여가와 오락	5.7	36.5	57.8	100.0(684)	0.820
의료시설	6.6	37.4	56.0	100.0(684)	0.790
범죄	79.1	17.5	3.4	100.0(684)	-0.918
농촌사정	30.0	46.6	23.4	100.0(686)	-0.126
주택	10.7	43.9	45.4	100.0(685)	0.620
환경	45.4	40.7	13.9	100.0(685)	-0.532
공공시설	9.2	51.5	39.3	100.0(684)	0.620
사람의 값어치	40.3	47.8	11.9	100.0(683)	-0.545
정신건강	40.2	53.6	6.2	100.0(681)	-0.711
사회정의	40.2	53.6	6.2	100.0(681)	-0.734
관광부조리	56.5	38.8	4.7	100.0(683)	-0.847
지역내 취업사정	39.3	49.8	10.9	100.0(682)	-0.567

주) 평균점수는 '나빠진 편이다' -1, '그저 그렇다' 0, '좋아진 편이다' 1을 주어 나타낸 것이다. 평균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좋아진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나빠진 정도가 높다.

이상을, <나빠진 항목 그룹>은 0점 미만을 갖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ed definition)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목별 점수의 범위는 -1에서 1점이고, 항목별 점수의 중간점은 0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 표 4.4 〉 앞으로 10년 후의 전망

(단위: %, 점수)

항 목	나빠질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N)	평 균
교통사정	51.0	17.7	31.3	100.0(683)	-0.240
교통안전	45.9	30.0	24.1	100.0(684)	-0.311
교육의 질	6.4	32.4	61.2	100.0(683)	0.810
대민봉사행정	6.7	39.7	53.6	100.0(683)	0.777
물가	50.1	38.5	11.4	100.0(684)	-0.629
세금	47.3	41.1	11.6	100.0(679)	-0.605
이웃간의 인심	53.7	37.1	9.2	100.0(684)	-0.707
가족관계	20.2	55.3	24.5	100.0(683)	0.095
친척관계	21.5	57.0	21.5	100.0(680)	0.000
문화생활	3.4	23.4	73.2	100.0(680)	0.912
여가와 오락	4.3	21.4	74.3	100.0(681)	0.892
의료시설	5.2	19.1	75.7	100.0(679)	0.872
범죄	70.3	22.9	6.8	100.0(680)	-0.824
농촌사정	36.3	39.4	24.3	100.0(684)	-0.198
주택	9.2	45.6	45.2	100.0(684)	0.661
환경	50.4	33.2	16.4	100.0(683)	-0.509
공공시설	8.4	41.4	50.2	100.0(683)	0.715
사람의 값어치	40.3	47.1	12.6	100.0(683)	-0.524
정신건강	49.4	40.2	10.4	100.0(684)	-0.653
사회정의	33.7	52.1	14.2	100.0(683)	-0.407
관공부조리	34.4	48.3	17.3	100.0(684)	-0.331
지역내 취업사정	31.3	47.5	21.2	100.0(684)	-0.195

주) 평균점수는 '나빠질 것이다' -1, '그저 그럴 것이다' 0, '좋아질 것이다' 1을 주어 산출되었다. 평균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좋아질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나빠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좋아진 항목들 중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문화생활'이다. 그 다음으로 '여가와 오락', '의료시설', '대민봉사행정', '교육의 질', '주택', '공공시설', '교통사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나빠진 항목들 중에서는 '물가', '세금' 등이 가장 나빠졌다. 그 다음으로 나빠진 것은 '범죄', '관광부조리', '이웃간의 인심', '사회정의', '정신건강', '교통안전', '취업사정', '사람의 값어치', '환경', '친척관계', '농촌사정', '가족관계'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앞으로 10년 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볼 차례가 되었다.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해보면 응답자들은 '문화생활'이 제일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여가와 오락', '의료시설', '교육의 질', '대민봉사행정', '공공시설', '주택', '가족관계' 등의 순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범죄'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웃간의 인심', '정신건강', '물가', '세금', '사람의 값어치', '환경', '사회정의', '관광부조리', '교통안전', '교통사정', '취업사정', '농촌사정' 등의 순으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 응답자들에게 현재 제주도가 살기에 좋은 사회로 인식되고 있는가 아니면 살기에 좋지 않은 사회로 인식되고 있는가. <표 4.5>는 "대체로 보아 현재 제주도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9점이라고 하고 가장 살기 나쁜 고장을 1점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는 어느 점에 해당하는지요. 해당되는 곳에 0표해주시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평균점수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점수의 범위는 1~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살기 좋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sup>11)</sup>

표에서 보면 평균점수가 6.72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점수범위의 중간점 5를 넘어서는 수치로 제주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집단에서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 전문직업집단의 점수가 높아 제주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 소득수준에서는 2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이, 주관적 계층에서는 상층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꽤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전문직종, 높은 소득수준과 계층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특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며 이들은 환경적 조건이 좋은 제주도를 살기 좋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더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11) 응답범주별 백분율을 보면, 2점 0.1%, 3점 1.2%, 4점 1.9%, 5점 15.9%, 6점 26.5%, 7점 27.5%, 8점 11.4%, 9점 15.4%로 나타나고 있다.

12) 1점(가장 살기 나쁜 곳)에서 9점(가장 살기 좋은 곳)에 이르는 응답지에서 7~9점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떤 점에서 제주도가 살기 좋다고 보는지를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으로 나누어 응답해달라고 한 결과, 첫번째에서는 응답자의 71.5%가 '환경, 물, 공기가 좋고 공해가 없다',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두번째에서는 '자연환경, 물 등이 오염되지 않아서'가 22.8%, '인심이 타지역보다 좋다'가 24.7%, '교통이 편리하여 전역이 일일생활권'이다가 14.7%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3점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점이 살기에 나쁘냐고 질문한 결과, 첫번째 나쁜 점은 '물

〈 표 4.5 〉 제주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정도

구 분	빈도수(N)	평 균	유의도
전체	684	6.72	
소득수준별			p=0.0003
100만원미만	184	6.69	
100~149만원	203	6.48	
150~199만원	118	6.65	
200만원이상	158	7.11	
주관적 계층별			p=0.0196
상층	126	7.04	
중간층	449	6.65	
하층	109	6.67	
조사대상집단별			p=0.0081
일반집단	503	6.65	
대학생집단	74	7.14	
전문직업집단(제주도내 거주)	65	6.60	
전문직업집단(제주도외 거주)	42	7.12	

### 3) 제주도의 발전방향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는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여러 가지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여왔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의 양대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맞게 되는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귤산업은 우루과이협상 타결과 세계무역체제의 성립으로 제주산 감귤이 더 이상 보장된 시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관광산업은 관광패턴의 변화로 그 방향을 재설정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들과 맞물리면서 제주도의 개발 또는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는데, 〈표 4.6〉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응답들은 “현단계 제주사회는 농업, 관광산업 등에서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의 항목별로 본다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얻은 것이다. 표의 항목들을 보면 ‘현 상태가 좋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점수범위상의 중간점(2.5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발전하기

질만농주의 확산(21.4%), ‘유흥업소난립으로 청소년 탈선 심각’(14.3%)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 나쁜 점으로는 ‘높은 물가’(40%)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 표 4.6 〉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단위: %, 점수)

문항	응답범주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계(N)	평균 점수
자유무역항		38.6	41.0	15.0	5.4	100.0(682)	3.13
평화의 섬		67.9	28.4	3.3	0.4	100.0(683)	3.64
국제회의산업		67.1	29.2	3.1	0.6	100.0(687)	3.63
국내휴양지		56.7	37.5	5.1	0.7	100.0(682)	3.50
국제휴양지		63.5	28.3	7.0	1.2	100.0(684)	3.54
해양산업		50.0	42.5	6.9	0.6	100.0(682)	3.42
농업 등 1차산업 중심지		26.7	43.0	27.8	2.5	100.0(677)	2.94
동북아시아 중심 물류센타		37.0	41.7	18.3	3.0	100.0(678)	3.13
국제(특히 동북아)금융중심지		33.2	38.8	23.3	4.7	100.0(680)	3.01
정보 등 첨단지식산업		44.2	38.4	15.1	2.3	100.0(677)	3.24
현상상태가 좋다		7.3	20.9	50.3	21.5	100.0(671)	2.14

주) 평균점수는 '매우 찬성한다' 4점, '대체로 찬성한다' 2점, '대체로 반대한다' 3점, '매우 반대한다' 1점을 주어 계산한 것이며, 항목별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다.

위해서는 관광업, 농업 등 현재와 같은 산업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들을 보면 '평화의 섬'(3.64), '국제회의산업'(3.63), '국제휴양지'(3.54), '국내휴양지'(3.50) 등의 순으로 이들은 3.5점을 넘어서고 있다. 다음으로 큰 점수를 보이는 항목들은 '해양산업'(3.42), '정보등 첨단지식산업'(3.24), '자유무역항'(3.13), '동북아시아 중심 물류센타'(3.13) 등이다.

그러나 위의 표상의 평균점수는 대체적인 우선 순위의 내용만을 가리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순위를 매기기 위해 평균점수를 활용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응답자들이 문항별로 주어진 응답지중 어느 하나를 택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엄격한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필요로 한다. <표 4.7>은 항목별 중요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평화의 섬'이 2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제휴양지'(18.6%), '국제회의산업'(15.1%), '자유무역항'(10.4%) 등이 비교적 많이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 중 '평화의 섬'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과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와외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국제휴양지'는 최근

세계화 논의의 열기 속에서 제주가 실질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해야하며, 제주관광이 단순히 보는 관광뿐만 아니라 휴양의 개념이 결합된 것이어야 함을 지시하는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은 2000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ASEM 개최지 유치경쟁에서 비록 제주도가 서울에 뒤졌지만 마지막까지 경합함으로써 제주사회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 표 4.7 〉 제주도 발전 방향의 중요 순서

(단위: %)

항 목	비 율 (N)
자유무역항	10.4( 70)
평화의 섬	28.5(191)
국제회의산업	15.1(101)
국내 휴양지	5.2( 35)
국제휴양지	18.6(125)
해양산업	4.0( 27)
농업 등 1차산업 중심지	6.4( 43)
동북아 물류센타	1.7( 11)
국제(특히 동북아시아) 금융중심지	1.9( 13)
정보 등 첨단지식산업	7.3( 49)
현상태도가 좋다	0.9( 6)
계	100.0(671)

주) "제시된 항목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 제2절 21세기 세계, 제주도 및 제주인

이제 21세기가 불과 4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0세기를 뒤로 하면서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향해 그 변화의 추이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80년대까지는 이념의 대립이 국가간의 모든 질서를 결정짓던 시대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서 그 대립은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소련의 와해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 대신 세계는 철저하게 자국(自國)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는 경제력을 그 핵심 요소로 한다. 또한 컴퓨터와 전기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뉴미디어의 발달, 자유로운 이동 등에 의해 삶의 단위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써, 이제 국경의 개념은 과거의 그것과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모든 국가가 개방화되어 더 이상 개인생활을 폐쇄적인 국경이라는 울타리 속에 묶

어 들 수 없는 이른바 '지구촌시대', 즉 세계화시대가 펼쳐지고 있다.<sup>13)</sup>

이념의 대립이 그 축이었던 냉전시대가 물러가면서 이제 세계는 경제의 세계화에 의해 자본주의라는 단일 시장체제로 통합되고 있다. 지난 95년 출범하기로 합의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1세기의 세계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단일 경제질서가 성립되기는 요원하다. 국가간에 경제 수준도 서로 다를 뿐더러 서로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경제의 흐름이 한편으로는 세계경제 질서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제블록화가 한창이다. EU가 EEA(유럽경제지역)로 새로 발족되며 NAFTA(북미자유무역연합)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계는 탈냉전의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자유화와 경제블록화라는 두 물결의 교차 속에서 21세기 경제대전의 전초전 양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경제의 블록화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 시대'(Asia-Pacific era) 또는 '환태평양시대'(Pacific Rim era)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50%이상 그리고 무역량의 42%를 산출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 금융자원의 축적, 급속하고 높은 경제성장 및 내부 교역의 활성화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다음 세기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는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 축이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들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종적 공통성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경제협력이 급속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역간, 기업간 교류에 의한 일부 지역의 경제협력 구상은 가시화 단계에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는 개방적인 지역협력체제를 내세우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 중국대륙,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 모양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로 둘러싸인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아 해역에 속하는 바다들은 그 주변국들 사이에 주요한 해양 항로이며, 군사활동을 위한 주요 무대로 활용되는 등 전략적·안보적 이해관

13) 21세기 제주도의 세계화전략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환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전략」, 제주도, 1995를 참조할 수 있다.

계의 표적이 되어왔다. 또한 동북아 해역은 대륙붕과 어족이 풍부한 어장이기 때문에 주변국들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주변국가의 관할수역간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해양오염 방지 내지 해양환경의 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 특히 요구되는 해역이기도 하다.

동북아 해역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도 이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대만이 마주보고 있는 대만 해협에는 심각한 긴장상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평화와 지역안보 문제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심각한 곳이기도 하다.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주도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지정-지경학적(地經學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동북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동북아 국가들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나 협력체 본부의 설치에 있어 적합한 장소로 부각될 수 있다. 이미 91년의 한·소회담과 96년의 한·미, 한·일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려 동북아시아의 정상회담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제주도는 한국·중국·일본·북한이 참여하는 환황해경제권과 한국·중국·일본·북한·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동해 경제권이 연결되는 고리 내지 거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는 동북아 경제권과 동남아 경제권을 연결하고 또한 동북아 경제권과 서태평양 경제권의 연계지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동북아국가들, 동북아 해역의 도서들 그리고 동북아해역 연안지방자치체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치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95년 7월이래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은 지방분권화와 자율화의 확산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지방분권화와 자율화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체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방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주민의 삶의 조건과 내용을 형성해 나감은 물론 세계사회 속에서 그 존재 의의 및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는 체제가 시작됨을 뜻한다. 따라서 21세기의 제주는 일차적으로 제주도민에 의해서 그 한계가 극복되고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민들의 결집을 창출해냄은 물론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제3절 바람직한 제주인의 의식 또는 정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다. 제주의 생존기반인 감귤 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이를 보조하거나 이와 연관된 간접생산 부문의 체제를 정비하는 일, 그리고 21세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과제가 선적해 있다. 이런 과제들 중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인의 바람직한 의식 또는 정신을 설정하는 일이다. 의식 또는 정신은 그 사회의 기본구조를 태두리 짓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베버(M. Weber)에 의하면 서구가 오늘날 융성한 자본주의체제를 가질 수 있었던 단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윤리와 정신에 있었다. 또한 우리는 미국사회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뉴프론티어정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만큼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제주인의 의식을 검토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모습을 다듬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1) 제주인의 의식: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

제주인의 의식에 대한 영역별 검토는 앞 장까지의 논의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 여기서 는 의식일반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 의식을 보면,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독립심과 개인주의이다. 제주인의 삶을 관찰해보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려는 성향과 집단중심보다는 개인중심의 원리가 일상생활에 잘 배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것의 예로는 노부모가 힘이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잘 엿볼 수 있으며, 뒤의 것의 예로는 사혼(死婚)제도, 상속제도, 분제(分祭)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립심과 개인주의가 민주주의 생활원리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두번째의 요소로는 협동심과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농촌에서의 수놓음, 공동목장의 운영, 관혼상제의 협동적 참여 등은 이러한 의식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예들 중 많은 것들이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색되었지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개체화되면 되면 될수록 상부상조적 연대의식은 그 만큼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의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조냥정신이다. 조냥정신은 제주인들이 역사적 시련과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면서 키워오고 내면화해온 자립과 근검절약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토지와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온 제주인들은 근면한 노동과 절약적인 소비생활을 중요한 가치덕목으로 설정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70년대 이후 환금작물과 관광산업의 성공은 제주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상당히 손상시켰지만 여전히 잠재적 제주정신의 하나로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난관극복의 미래지향적 의식이다. 비록 사람들이 둘러싼 환경이 험난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척정신은 제주인의 기상으로 작용하였다. 이어도는 현실적 불행과 고통이 제거된 낙원 또는 이상향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험난한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이루어내고자하는 개척정신과 미래지향적 정신은 이어도정신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를 준비하는데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부정적인 의식으로 들 수 있는 첫째의 요소는 이기주의이다. 이기주의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로 양분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공동체적 성격과는 배치가 되는 것들이다. 전통적으로 제주사회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공동체적 성격은 상당히 해체되고 집단적, 지역적 수준의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또는 지역이기주의로, 개인적 수준의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이기주의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불신의식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의 확산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요소는 지연, 학연과 관련된 연고주의이다. 이들은 제주사회에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사회 일반에서 이런 것들은 부정적 의식의 하나로 주장되어져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에서 연고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제주사회가 지역적 고립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로 인해 사람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속되었고 학연, 지연과 같은 연줄망이 이 사회적 관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이기주의는 이러한 연고주의의 한 이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 요소는 폐쇄주의 또는 배타주의와 같은 것들이다. 폐쇄주의 또는 배타주의는 환경적·역사적 경험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응답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들은 제주인의 정신 또는 의식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된 자료를 눈 여겨 들여다보면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 따라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과 경계심은 크게 발견되지 않지만, 일반적, 집단적인 차원에서 보면 폐쇄주의와 배타주의는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가령 “나는 고향이 제주도 사람이 아닌 외지인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특히 육지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라는 문항과 “제주도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동의 하는 사람들은 응답자의 2/3 수준에 거의 이르고 있는 것이다.

## 2) 제주정신의 상징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는 위에서 살펴본 부정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의식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제주인에게 요구되는 의식 또는 정신은 과거의 것과 다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의 삶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이 과거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은 단순히 농업과 어업을 생계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산업형 사회의 그것도 아니다. 제주사회의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제 공하는 도전이 매우 거셀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은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다. 크게 볼 때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경향들은 우리가 이미 직면해 있거나 앞으로 직면 하게 될 거대 경향들(megatrends)이며 도전들이다. 이러한 거대 경향 속에서 감귤산업 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성원들의 삶의 조건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도 구각을 벗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 적, 진취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의 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기에는 역 부족인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요구되는 제주인의 의식 또는 정신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경험적 자료를 통해 그 윤곽을 보기로 하자.

〈표 4.8〉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인의 의식을 바르게 설정하 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정신의 상징으로, 생활의 지침으로 미래 의 비전을 담는 내용을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 문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것은 구조화된 질문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개방형질문의 형태 로 이루어졌는데,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되어 있다. 표는 이러한 대답들의 요점 을 나열한 것이다.

〈 표 4.8 〉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원자료)

항 목	계(N)
① 삼무정신	17.2(61)
② 조(조)낭정신	27.5(97)
③ 자연과 하나	0.9( 3)
④ 들하르방처럼 깨끗하게	3.0(11)
⑤ 혼(혼)저 읍서예	9.0(32)
⑥ 인심좋은 섬	1.1( 4)
⑦ 유채의 섬	0.3( 1)
⑧ 감수광	0.6( 2)
⑨ 주인의식	1.4( 5)
⑩ 어디감수광	2.2( 8)
⑪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	2.5( 9)
⑫ 믿음	0.6( 2)
⑬ 몽(몽)생이(은근, 끈기, 부드러움)	0.6( 2)
⑭ 읍데강	0.6( 2)
⑮ 협동정신	1.9( 7)
⑯ 너영나영 정신	1.1( 4)
⑰ 친절 미소의 정신	1.4( 5)
⑱ 근면 절약 정신	1.7( 6)
⑲ 정직 신용 정신	0.3( 1)
⑳ 상부상조	1.1( 4)
㉑ 잘 지내수광	0.6( 2)
㉒ 어서 합시다(혼저 혼게 마심)	0.3( 1)
㉓ 예절과 친절	0.9( 3)
㉔ 제주인의 긍지를 갖고 방언을 생활화	0.3( 1)
㉕ 자립, 자주정신	1.4( 5)
㉖ 또 오십시오	1.4( 5)
㉗ 요망지계	0.9( 3)
㉘ 평화의 섬	1.8( 6)
㉙ 모(모)다드령	0.3( 1)
㉚ 행복의 섬	0.3( 1)
㉛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흐끔만 더 속읍시다)	0.3( 1)
㉜ 개척정신	1.4( 5)
㉝ 새마을 정신	0.3( 1)
㉞ 선비정신	0.3( 1)
㉟ 평안정신	0.3( 1)

(이면 계속)

(앞 면에서 계속)

항 목	계(N)
㉞ 정낭	0.3(1)
㉟ 수놓음정신	3.0(11)
㊱ 깨끗하고 살기좋은 곳	1.1(4)
㊲ 감귤을 중심으로 집약시킨 말	0.3(1)
㊳ 소박	0.3(1)
㊴ 결속력	0.3(1)
㊵ 승조사상, 조상숭배정신	0.3(1)
㊶ 천국	0.3(1)
㊷ 지상낙원	0.3(1)
㊸ 불 끊는 섬 제주	0.3(1)
㊹ 합리적 정신	1.1(4)
㊺ 이어도 정신	0.6(2)
㊻ 화합과 안정	0.3(1)
㊼ 자부심	0.3(1)
㊽ 돌처럼 강한 정신	0.3(1)
㊾ 미덕과 친절	0.6(2)
㊿ 풍요로운 곳	0.3(1)
㉀ 하면 된다는 정신	0.3(1)
㉁ 탐라정신(자존정신)	0.6(2)
㉂ 제주정신(자부심)	0.3(1)
㉃ 예것을 되살리는 것	0.3(1)
㉄ 탐라토피아	0.6(2)
㉅ 소박하며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내용	0.3(1)
㉆ 현실을 직시하며 눈 들어 한라산의 기상을 한 눈에 담으며 전진한다. 뒤로 돌아서는 태평양의 용지를 가슴속에 담으며 모든 것을 포용한다.	0.3(1)
㉇ 정신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전도민이 합의하는 일이 중요. 제주정신으로 조(조)남정신, 삼무정신보다 진취적인 개념으로 선정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0.3(1)
㉈ 있는 그대로의 제주도로써 정이 있는 고향	0.6(2)
㉉ 고고함과 은은한 미의 상징으로서 한란 또는 백록담	0.3(1)
㊱ 무사?의식	0.3(1)
계	100.0 (352)

위의 표에 나타난 내용을 기초로 몇 가지 주요 유형으로 다시 범주화하여(〈표 4.9〉 참조) 빈도분포를 나타내보면 〈표 4.10〉과 같다. 응답자들은 '조낭정신'(31.1%)과 '혼저 읍서예'(22.4%)를 가장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삼무정신'(17.9%), '자립자주/자존과 주인정신'(9.4%), '수눌음정신(협동정신)'(9.1%), '이어도정신'(6.8%), '자연과 풍요'(2.8%), '기타'(0.6%) 등의 순이다. 이것을 조사대상집단별로 볼 때, '조낭정신'의 경우는 대학생과 도외 전문직업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되고 있다. '혼저 읍서예'는 대학생집단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도외 전문집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삼무정신'은 대학생 집단에서, '이어도정신'은 도외 전문직업집단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 표 4.9 〉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원자료의 요약)

상 정 내 용	관련 항목 또는 내용
삼무정신	삼무정신, 정낭
조낭정신	조낭정신, 근면, 절약, 소박, 합리적 정신
혼저 읍서예	혼저 읍서예, 또 오십시오, 또 읍서양, 감수광, 읍테강,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 믿음, 친절·미소의 정신, 예절과 친절, 상냥, 미덕과 친절, 정직·신용, 인심좋은 섬, 잘 지냄수광, 어디 감수광
수눌음정신	수눌음, 협동정신, 상부상조, 너영나영 정신, 나눔의 정신, 모다드렁, 혼저호게마심, 조금만 더 합시다, 호꿈만 더속읍시다, 새마을정신, 수눌음정신, 결속력, 화합과 안정
자립자주/ 자존과 주인정신	자립자주정신, 들하르방처럼 곳곳하게, 강인함, 몽생이, 들처럼 강한 정신, 자존, 제주인의 긍지를 갖고 방언을 생활화, 요망지계, 선비정신, 자부심, 주인의식, 모든 일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
이어도정신	이어도정신, 이어도 가젠허난 속암수다, 천국, 지상낙원, 불 끊는 섬, 풍요로운 곳, 평화의 섬, 행복의 섬, 탐라토피아, 평안정신, 개척정신, 하면 된다는 의식
자연과 풍요	자연과 하나, 유채의 섬, 감귤, 깨끗하고 살기좋은 곳, 풍요로운 곳, 한란 또는 백록담
기타	승조사상, 예것을 되살리는 것

〈 표 4.10 〉 조사대상집단별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 분포

정신 내용 \ 집단별	일반성인 집단(도내)	전문직업 집단(도내)	대학생 집단	전문직업 집단(도외)	계(N)
삼무정신	16.2	14.0	35.2	16.6	17.9( 63)
조낭정신	34.0	38.0	18.9	10.0	31.0(109)
흔저 읍서예	23.8	20.0	10.8	30.0	22.4( 79)
수놓음정신	9.4	10.0	8.1	6.7	9.1( 32)
차림자주/자존과 주인정신	9.8	8.0	10.8	6.7	9.4( 33)
이어도정신	3.8	8.0	10.8	23.3	6.8( 24)
자연과 풍요	2.1	2.0	5.4	6.7	2.8( 10)
기타	0.9	-	-	-	0.6( 2)
계(N)	100.0(235)	100.0(50)	100.0(37)	100.0(30)	100.0(352)

여기서 해석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삼무정신'과 관련된 부분이다. 앞의 문화의식에서 본 것처럼 응답자들의 81.6%가 '삼무정신'을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삼무가 지금의 사회에서는 발견되기 어렵다고 보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제주사회가 체험했던 자연환경에서 볼 수 있듯이 삼무는 과거 사회구조의 산물이었다. 제주사회는 제한된 농토면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지주제가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런 만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크지 않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투쟁을 힘겹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러한 고난극복 과정을 통해 어렵게 생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땀흘려 획득된 재산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인지되었다. 자신의 것을 타인의 것과 견주어 봄으로써 갖게 되는 상대적 빈곤감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당시 제주인들이 공유하던 목표는 절대적 빈곤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 자체였다. 따라서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구걸같은 비생산적 방식을 통하여 생존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거지 없고, 대문 없고, 도둑이 없었던 삼무는 이처럼 열악했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절대적 빈곤이 지속되는 사회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가 되는 사회이다. 과거보다 빈부의 격차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 분배정의의 수준은 매우 낮게 인식되었다. 그런 만큼 절도 같은 범죄의 증가율도 매우 커지게 되었다. 삼무의 모습은 발견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답자들이 삼무정신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

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질문에서 응답자의 17.9%가 삼무정신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 수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삼무정신을 이제 박제화된 것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삼무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현재의 사회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다. 삼무정신은 지금의 사회환경을 반영하지도, 행동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주사회가 삼무현상(거지, 대문, 도둑의 부재)을 결여하기 때문에 역으로 삼무정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갈구하는 것, 부정의 부정, 온고지신(溫故知新) 등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의식의 차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차원과 관련시켜 보는 것이다.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삼무정신이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응답자들의 무의식 속에는 삼무정신이 제주정신의 하나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응답식 질문에서는 삼무정신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그 다음은 '수눌음정신'과 관련된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수눌음('수눌다'의 명사형)은 제주 농촌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협동적 노동형태로서 '품앗이'를 통해 힘든 일을 이웃간에 거들어 가며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번기에는 일손을 크게 필요로 하는데, 제주인들은 서로간에 노동을 교환함으로써 부족한 일손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눌음의 사회적 기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수눌음은 협동적 노동 또는 품앗이를 통해 단순히 노동의 어려움(가령 노동력의 부족, 노동에 따르는 고통)을 해결해나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촉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눌음 행위는 가까운 이웃끼리 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내의 모든 개인과 가구에까지 확대되었다. 앞의 문화 및 생활의식(제3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응답자의 대다수가 "제주도 농촌에서 일할 때 수눌어서 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 사람들은 협동심이 많다"는 데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눌음의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촌환경의 변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수눌음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수눌음은 더 이상 보편적인 협동적 노동형태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눌음의 본질적 의미가 협동, 상부상조, 공동체적 연대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수눌음은 산업화된 현대사회와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해석되고 되살릴 필요가 큰 전통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제주사회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흠어진 각자의 힘을 제주공동체라는 틀 속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눌음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놓음이 현대적으로 해석될 필요성이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혼저 읍서예'와 관련된 해석이다. 이 개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제주사회가 관광을 주력 산업의 하나로 설정하는 한 관광객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지리적 변방에 위치함으로써 갖게 될 수 있는, 때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물리적 폐쇄주의는 관광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다. '혼저 읍서예'는 개방을 의미함과 동시에 물리적 폐쇄주의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개방과 대외적 자신감 및 당당함이 '혼저 읍서예'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친절과 인심 등과 같은 개념이다. 친절을 제공하지 않고 집안으로 외부 손님을 초청하는 것이 집주인의 예의가 아닌 것처럼 개방과 대외적 자신감은 친절과 좋은 인심을 필요로 한다. 친절과 좋은 인심은 열등감으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태도며 행동인 것이다. 무뚝뚝함, 불친절, 험한 인심은 개방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일 수 없다.

과거 제주사회의 환경은 사회관계의 세련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지난 사회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환경의 개척이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적어도 과거 제주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중시했던 유교의 원리가 과거 제주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유교적 요소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 '혼저 읍서예'를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앞으로의 사회환경이 과거와 달리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표 4.9>의 제주정신의 상징 내용은 다시 축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자립자주'의 일부 내용은 조낭정신과도 관련되지만 삼무정신이나 이어도정신과도 부분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정신의 내용 구성을 시도할 차례가 되었다.

### 3) 제주정신의 내용 구성: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유형 정립

제주정신의 내용구성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제주인들의 정신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제주사회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적 측면이 대내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외적 측면은 대외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셋째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에 기초하여 이념형적으로 제주정신의 유형을 설정하면 <표 4.11>과 같다. 이 표는 사회경계적(社會境界的) 차원과 시간적/사회수준 차원의 두 가지 차원을 교차시켜 얻은 것인데, 다섯 가지 유형화된 제주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회경계적 차원은 제주사회를 대내적 범주와 대외적 범주의 경계로 구분되고 있다. 대내적 범주는 제주사회의 내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대외적 범주는 제주사회와 외부사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외적 측면을 가리킨다. 시간적/사회수준 차원은 시간과 사회수준을 결합한 차원으로 현재지향적/미시적 범주와 미래지향적/거시적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의 범주가 개별 사회성원들의 현재적 태도, 행동 등과 연관된다면, 후자의 범주는 제주사회의 미래와 관련된다.

< 표 4.11 >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유형

		사회경계적 차원	
		대내적(사회내적)	대외적(사회외적)
시간적 / 사회수준 차원	현재지향적 / 미시적	조낭정신	혼저 읍서예정신
	미래지향적 / 거시적	신삼무정신	이어도정신

(Note: A dashed box labeled '새수놓음정신' is positioned in the center, overlapping the four quadrants of the table.)

① 조낭정신 유형: 근검·절약의 생활화

조낭정신은 제주정신의 상징으로 제주인들에게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과소비와 허례허식적 생활습관을 버리고 제주인들이 근검절약을 일상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낭정신의 생활화는 조상들의 생활지침을 현대사회에서 계승시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생활철학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을 뜻한다.

② 신(新)삼무정신 유형: 신삼무의 사회화

신삼무정신은 현재의 사회상황에서 삼무현상을 재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삼무정신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다. 범죄와 비생산적 삶의 방식의 제거로 사회질서를 도모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가꾸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며 거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모범적 자치공동체를 구현하여 제주사회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③ 혼저 읍서예정신 유형: 열린 태도, 의식 및 진취적 행동

혼저 읍서에는 대외적 개방에 필요한 친절과 좋은 인심을 상징화한 것으로 사회성원 각자가 개방적, 관용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혼저 읍서예정신은 21세기에 대응하는 데 친화력이 있는 사고와 행동의 함양을 추구한다.

④ 이어도정신 유형: 제주사회의 세계화

이어도정신은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상적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미래지향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평화의 섬'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정신은 제주사회의 세계화전략의 전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⑤ 새수놓음정신 유형: 참여적 공동체의 구현

이 새수놓음정신은 앞서 열거한 조낭정신, 신삼무정신, 혼저 읍서예정신, 이어도정신을 서로 이어주는 핵심적 고리이며 참여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이룬다. 새수놓음정신은 상부상조, 협동, 단결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새수놓음정신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수놓음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개별화, 원자화, 분자화되기 쉬운 현대사회의 사회적 삶이 공동체적 연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해석된 것이다. 따라서 새수놓음정신은 도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제주인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총화적 단결을 이룸으로써 참여적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밑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제4절 제주정신 함양을 위한 몇 가지 과제

그러면 이렇게 제주인들에게 함양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어느 한가지의 정신유형만으로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객관적 토대를 담아낼 수는 없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요구되는 제주정신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다. 그것은 수구적 현상유지만을 위한 것일 수는 없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진취적인 기상을

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방법을 제시하면, 21세기 제주도의 비전의 수립, 이를 구현시키는 데 요구되는 제주인의 의식덕목의 도출, 제주정신의 개발과 교육을 위한 제주학의 체계화와 커리큘럼의 개발, 그리고 21세기 제주인상(像) 확립을 위한 교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1) 21세기 제주도의 비전 수립

21세기 제주도의 위상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비전은 제주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 주민들의 내적 욕구, 제주도의 객관적 역량,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는 지정·지경학적 변화에 맞추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설정은 열린 마당을 통하여 제주사회의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4)

### 2)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의식덕목의 도출

제주인의 의식세계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제주인들이 특유의 자연환경, 역사경험, 사회적 환경 등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로의 대전환점에서 제주인들은 이제 고유한 정신세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감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탈바꿈을 시도할 것이 요구된다.

새로운 의식덕목은 우선 제주도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의식에 입각하여 제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21세기를 헤쳐나갈 진취적 인간형을 지향하는 것이 요청된다.

### 3) 제주학의 체계화와 '제주정신' 커리큘럼과 교재개발

그 동안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각 분야에서 제주도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학(濟州學)이라는 지역학의 범주 속에서 종합적인 연구의 틀을 설정하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질 시점에 와 있다.

---

14) 질문지에서는 지적된 "의식 또는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그 방안을 물었다.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근면, 검소, 저축을 생활화해야 한다',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의식적 노력이 중요하다', '올바른 역사관을 지녀야 한다', '지방유지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등등이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가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학은 지금까지 제주인이 걸어 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뜻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화 노력은 대단히 시급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내일의 제주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교재의 집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듬어진 제주학에 대한 교과과정과 교재는 학교는 물론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4) 21세기 바람직한 제주인상 확립을 위한 교육

21세기에 있어 바람직한 제주인상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은 가정, 학교 및 사회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① 가정교육

유태인의 정신교육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제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질 제주정신을 심어주는 일차적 교사는 바로 부모일 것이다. 제주인의 얼과 미래의식이 가정교육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학교교육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제주사회에 대한 역사, 사회, 문화, 미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바람직한 제주인상을 내면화하게 될 것이다.

##### ③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직장, 언론, 기타 평생교육(시민단체 포함)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훈련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교육 기관들은 각기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가정과 학교의 교육 목표나 가치 지향과 일관성을 지닐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각 기관과 단체들은 제주사회라는 큰 공동체 속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제주정신과 제주인상을 함양하는 내용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된다. 가정·학교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사회교육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제주인이 갖고 있는 의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제주인의 바람직한 정신세계의 정립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주인의 의식형성과 관련된 제환경을 검토했다. 둘째로 현단계 제주인의 의식을 영역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제주인의 의식에 기초하여 21세기에 요구되는 의식과 정신의 유형들을 선정했으며 이를 구현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집단을 제주도내 거주 일반(성인)집단, 제주도내 거주 전문직업집단, 제주도내 대학생집단, 제주도의 거주 전문직업집단 등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총 687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는 조사대상자 집단에 따라 면접조사, 집단조사, 그리고 우편질문서 방법을 병행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발견된 제주인의 의식 또는 정신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고 결론으로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제1절 요약

#### 1) 정치의식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낮게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식에서는, 관용성과 타협의식은 비교적 낮으나 평등성과 준법의식은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민주주의식이 권위주의 의식에서 민주주의 의식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참여의식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의사는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투표행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주로 후보자의 인물(능력)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고 정당 귀속감도 거의 없다. 제주도에서 무소속 당선률이 높은 이유는 도민들이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후보들의 인물 됴됨이를 보고 투표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여전히 관권개입, 물량선심공세, 금전살포, 마스크의 편향 보도가 행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제시와

상대 후보 혈투기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감정, 지역파벌주의, 상호불신 등이 발생했다고 느끼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갈등은 자치단체장 선거만큼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의식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의 제반문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자리나 출세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있게 행동해야 하며, 나라 전체의 문제보다 지역의 문제를 먼저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의원(시·군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관광정책, 시·군과의 관계, 시·군의정 일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면에 농업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보고 있다. 광역의원(도의원)에 대한 평가는 관광정책, 도와의 관계, 도의정 일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면에 농업정책,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에 대한 평가를 보면, 관광정책, 시·군행정 일반, 시·군의 회와의 관계, 농업정책면에서는 응답자들이 시장, 군수들의 업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복지정책은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관광정책과 도행정 일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도의회와의 관계, 농업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의 사명감 부족, 적당주의, 관료주의 등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 2) 관광 및 개발의식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응답자들은 관광개발의 결과로 경제적 수준은 나아졌으나, 실질적인 이익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고,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관광개발을 하면서 미풍양속이 또한 많이 파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강화와 관광 부조리의 근절은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주관광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다.

관광개발의 주체에 관해서는, 응답자들 대다수가 개발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낮을 수록, 하층 및 대학생들이 더욱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관광개발로 인해 초래된 문제로서는 청소년 비행, 성도덕 타락,

물질만능적 사고방식의 팽배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와 외지인에 의한 토지 과다 소유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개발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응답자들은 그 동안의 개발정책이 소수에게 유리하게 되어왔다고 보고 있고, 개발로 인해 토지가 외지인들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보존과 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는 비교적 부정적이며, 특히 중산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으로는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지방정부, 기업, 주민의 3자가 함께 주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주민의 합작, 외지기업과 제주도기업 간의 합작도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 개발방향 및 속도를 보면,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개발은 하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3) 사회의식

사회영역은 개인과 사회구조가 마주치는 시간적, 공간적 영역인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의식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분배에 대한 의식, 연고주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식, 법의식과 불신의식, 인물 키우기, 세대격차와 남녀 평등관, 가정의례, 주민생활, 언론관, 사람들의 걱정거리, 폐습과 사고방식 등의 문제들은 일상적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들이다.

응답자들은 빈부의 격차가 제주사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일수록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노력의 댓가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연고주의는 일 처리나 사회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는 능력이나 실력과 같은 요인보다 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식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법의식의 차원에 따라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적 차원과 관련해서는 법의식이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는 법적 소외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규범이나 타인에 대한 불신의식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신의식은 언론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보도내용의 신뢰성,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사회통합의 기능 등에 있어서 언론은 많은 응답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로의 역할과 인물 키우기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진정으로 사표가 될 만한 원로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으며 인물 키우는 데도 사회적 분위기가 관대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세대간 격차에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녀평등관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능력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여자가 특정 기호품(가령, 술과 담배)의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더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사회의 가정의례가 매우 허례허식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겹부조', '과다한 조화진열', '과다한 음식물제공', '답례품 주고받기', '소기종일 봉제'등 가정의례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타파되어야 할 폐습들 중에서 '허례허식', '사치풍조'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도 가정의례를 포함한 일상생활 일반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근검, 절약을 상징하던 제주정신의 하나인 조냥정신과 거리가 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제주사회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폐단들이 생활영역 별로 얼마만큼 심각한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제시된 영역의 대부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영역은 우범지역과 유흥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영역들은 공중질서, 도덕, 윤리의 문제와 결부지워볼 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의식의 차원에서 제주인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으로 '이기주의', '파벌, 학연, 지역주의' 등이 열거되고 있으며,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진취적·개방적 사고, 친절한 태도 등을 내면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문화·생활의식과 정체성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제주문화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전통음식을 좋아하며, 일상생활에서 제주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며 아는 정도도 높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친구간 풍습이 있어 생활이 불편하다고 보고 있지만, 친구간을 지키며 이사가거나 집을 고칠 때 날을 보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과 전통문화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관광개발을 하면 할 수록 전통문화는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 관광개발은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인의 정신내용에 있어서는 자립심과 독립심이 매우 강하고 공동체의식도 강하다.

조낭정신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삼무정신에 대해서는 교과서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제주도를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3 정도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육지에 비해 삶의 질도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식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주도 농촌의 수놓음과 이웃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조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제주도에 장남이라도 분가시키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생활태도와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주인들은 생활력이 강하며 검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인들의 능력은 육지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며 육지사람과 일을 할 때 당당한 자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배타심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외지인에 대해서 거리감과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주인 일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 응답자가 육지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며 편가르기의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육지에 가서도 제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응답자의 2/3 정도가 자신의 자녀들이 제주에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5) 제주사회의 현재, 과거 및 미래 관련의식

응답자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70년대까지는 생활형편이 매우 낮았지만 80년대 이후 좋아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의 제주도가 얼마나 살기에 좋은 사회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과거나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지만 정신적 풍요는 기약하기 힘들며, 오히려 현재보다 더 정신적 빈곤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과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 항목별 평가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우선 지난 10년 동안 좋아진 것은 '문화생활', '여가와 오락', '의료시설', '대민봉사활동', '교육의 질', '주택', '공공시설', '교통사정'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나빠진 것은 '범죄', '관광부조리', '이웃간의 인심', '사회정의', '정신건강', '교통안정', '취업사정', '사람의 값어치', '환경', '친척관계', '농촌사정', '가족관계' 등의 순이었다.

앞으로 10년 후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문화생활'이 제일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와 오락', '의료시설', '교육의 질', '대민봉사행정', '공공시설', '주택', '가족관계' 등의 순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나빠질 것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웃간의 인심', '정신건강', '물가', '세금', '사람의 값어치', '환경', '사회정의', '관광부조리', '교통안정', '교통사정', '취업사정', '농촌사정' 등의 순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들은 관광, 농업 등 현재와 같은 산업 특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의 섬', '국제회의산업', '해양산업', '정보 등 첨단지식산업', '자유무역항', '동북아 물류센터' 등을 예시하고 있다.

## 제2절 결 론: 제주정신 확립을 위하여

주지하다시피 다가올 21세기 사회가 20세기 사회와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사회외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압력은 사회 내적인 모습을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제주사회의 양대 주력산업이었던 감귤과 관광산업을 새롭게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만 머물지 않고 사회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인의 의식 또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남겨두는 것을 거부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위기의 상황에서 불어닥치는 도전에 잘 응전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폐쇄적, 배타적, 연고주의적, 비합리적,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진취적, 개방적 자신감을 지니면서 관용적,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의식을 전제로 하면서 제주인이 갖추어야 할 제주정신의 유형은 제주인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주사회의 전통적인 장점과 미덕을 계승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한 장점과 미덕은 현재와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공통의 생활정신과 시대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하며, 제주인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제주정신은 단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그래서 복수의 유형인 다섯 가지 정신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주사회의 대내적인 차원과 관

련해서는 '조낭정신'과 '신(新)삼무정신'이, 대외적 차원과 연관해서는 '혼저 읍서예정신'과 '이어도정신'이 그것이다. 이들은 또한 현재지향적/미시적 사회수준 차원과 미래지향적/거시적 사회수준 차원을 가로지르며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즉 현재지향적/미시적 사회수준 차원과 관련해서는 '조낭정신'과 '혼저 읍서예정신'이, 미래지향적/거시적 사회수준 차원에 있어서는 '신(新)삼무정신'과 '이어도정신'이 위치한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차원, 네 가지 범주 모두에 걸쳐 있는 것이 '새수놓음정신'이다. '조낭정신'이 근검절약적인 대내적 생활원리를 추구하는 만큼 현재지향적이고 미시적이라 할 수 있다. '신삼무정신'은 범죄 없고 생산적 노동이 중시되는 대내적 사회구조의 형성을 회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거시적이다. 반면에 '혼저 읍서예정신'은 대외적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과 친절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지향적이며 미시적 자아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어도정신'은 대외적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거시적 사회수준의 노력을 통하여 평화로운 이상적 사회를 건설한다는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수놓음정신'은 위의 네 가지 제주정신을 연결하는 핵심적 고리로 제주인의 단결을 함의한다고 할 것이다.

이같은 제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먼저 21세기 제주 사회의 구체적 비전을 선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전이 현재의 객관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고려를 통해 작성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두 번째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제주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의식덕목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침 형태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제주학을 체계화하고 제주정신과 관련된 커리큘럼 또는 교재의 개발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의 과제는 가정, 학교, 일반사회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제주정신 또는 제주인상(像) 정립을 위한 교육체제를 모색하여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21세기 제주사회는 제주인의 주체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응전에 달려 있으며, 성공적인 제주사회의 모양새를 위해서는 제주인의 진취적 의식 또는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연구는 '조낭정신', '혼저 읍서예정신', '신삼무정신', '이어도정신' 그리고 '새수놓음정신' 등을 제주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